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9년 2월

박사학위논문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 광 선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Longitudinal Study of The Effects of Parental
Parenting Styles on Adolescent Adaptation to School Life

-Focusing on Mediation Effects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2019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 광 선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박 희 서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신청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 광 선

이광선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호남대학교	교수	吳世海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金龍燮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金眞淑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丁言成拜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朴喜緒 (인) 

2018년 12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ABSTRACT

제 1 장 서 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
1. 연구범위	4
2. 연구방법	5
제 2 장 이론적 배경	6
제1절 부모의 양육방식	6
1. 부모의 양육방식의 개념	6
2. 부모의 양육방식의 유형	8
제2절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11
1. 학교생활적응의 개념	11
2. 학교생활적응의 구성요소	15
3. 학교생활적응의 주요이론	17
제3절 우울	21
1. 우울의 개념	21
2. 우울의 유형	22
제4절 공격성	24
1. 공격성의 개념	24
2. 공격성의 유형	25

제5절 선행연구	27
1. 부모의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27
2. 부모의 양육방식과 우울, 우울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29
3. 부모의 양육방식과 공격성,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36
4. 선행연구의 평가	42
 제 3 장 연구설계	 44
제1절 연구모형의 설정	44
1. 잠재성장모형	44
2. 다변량 잠재성장 연구모형	47
제2절 연구가설	50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52
1. 변수의 개요	52
2. 부모의 양육방식	52
3. 우울	55
4. 공격성	55
5. 학교생활적응	56
 제 4 장 실증분석	 58
제1절 자료의 수집 및 점검	58
1. 자료의 수집	58
2. 표본의 특성	58

3. 자료의 정규성 점검	62
제2절 변수 간 상관관계	64
제3절 변화모형 설정과 발달계적 추정	65
1. 부모의 양육방식의 발달계적 분석	65
2. 우울의 발달계적 분석	67
3. 공격성의 발달계적 분석	71
4. 학교생활적응의 발달계적 분석	74
제4절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	79
1. 부모의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79
2. 부모의 양육방식과 우울	81
3. 부모의 양육방식과 공격성	83
4. 우울과 학교생활적응	85
5.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	87
6.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	89
제 5 장 결론	103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03
1. 부모의 양육방식, 우울, 공격성으로 인한 학교생활적응의 실태 분석	103
2. 부모의 양육방식, 우울, 공격성으로 인한 학교생활적응의 개인차 분석	104
3. 부모의 양육방식이 우울, 공격성, 학교생활적응의 변화계 적에 미치는 영향분석	104
4. 부모의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105
5. 부모의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의 변화궤적 간의 관계 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분석	106
제2절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107
1. 부모의 양육방식, 우울, 공격성, 학교생활적응의 발달 궤적	107
2. 학교생활적응요인의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결과	109
제3절 연구결과의 시사점	111
1. 이론적 시사점	111
2. 실천적 시사점	114
제4절 향후 연구방향	116
참고문헌	118

표 목 차

<표 2-1> 부모의 양육방식의 개념	8
<표 2-2> 부모의 양육방식 유형	10
<표 2-3> 학교생활적응의 개념	14
<표 2-4> 학교생활적응의 구성요소	16
<표 2-5> 공격성의 유형	26
<표 2-6> 부모의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선행연구	28
<표 2-7> 부모의 양육방식과 우울에 대한 선행연구	32
<표 2-8>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선행연구	35
<표 2-9> 부모의 양육방식과 공격성에 대한 선행연구	38
<표 2-10>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선행연구	41
<표 4-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4차 기준	60
<표 4-2> 주요 변수의 정규분포 검토 결과	63
<표 4-3>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65
<표 4-4> 부모의 양육방식의 평균 및 표준편차	66
<표 4-5> 부모의 양육방식 요인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67
<표 4-6> 우울의 평균 및 표준편차	68
<표 4-7> 우울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69
<표 4-8> 우울의 발달궤적 추정치	70
<표 4-9> 공격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71
<표 4-10> 공격성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73
<표 4-11> 공격성의 발달궤적 추정치	74
<표 4-12> 학교생활적응의 평균 및 표준편차	75
<표 4-13> 학교생활적응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77
<표 4-14> 학교생활적응의 발달궤적 추정치	78
<표 4-15> 부모의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발달궤적 간 추정치	80
<표 4-16> 부모의 양육방식과 우울의 발달궤적 간 추정치	82
<표 4-17> 부모의 양육방식과 공격성의 발달궤적 간 추정치	84
<표 4-18>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의 발달궤적 간 추정치	86
<표 4-19>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의 발달궤적 간 추정치	88
<표 4-20> 부모의 양육방식과 우울·공격성 및 학교생활적응 경로계수	91

<표 4-21> 매개효과 경로계수와 매개효과 검증 102

그 립 목 차

<그림 3-1> 잠재성장모형 선형변화모형	47
<그림 3-2> 다변량 잠재성장 연구모형	50
<그림 4-1> 우울 요인 측정시점별 평균변화	67
<그림 4-2> 우울 발달궤적 적합도	69
<그림 4-3> 공격성 요인 측정시점별 평균변화	71
<그림 4-4> 공격성 발달궤적 적합도	72
<그림 4-5> 학교생활적응요인 측정시점별 평균변화	75
<그림 4-6> 학교생활적응 발달궤적 적합도	76
<그림 4-7> 부모의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발달궤적 간 관계	80
<그림 4-8> 부모의 양육방식과 우울의 발달궤적 간 관계	82
<그림 4-9> 부모의 양육방식과 공격성의 발달궤적 간 관계	84
<그림 4-10> 우울과 학교생활적응 발달궤적 간 관계	85
<그림 4-11>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 발달궤적 간 관계	87
<그림 4-12> 매개효과검증을 위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92
<그림 4-13> 매개모형	93
<그림 4-14>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초기값 간의 우울 초기값의 매개효과	94
<그림 4-15>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변화율 간의 우울 초기값의 매개 효과	95
<그림 4-16>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변화율 간의 우울 변화율의 매개효과	95
<그림 4-17>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초기값 간의 우울 초기값의 매개 효과	96
<그림 4-18>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변화율 간의 우울 초기값의 매개 효과	97
<그림 4-19>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변화율 간의 우울 변화율의 매개 효과	97
<그림 4-20>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초기값 간의 공격성 초기값의 매개효과	98
<그림 4-21>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변화율 간의 공격성 초기값	

	의 매개효과	99
<그림 4-22>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변화율간의 공격성 변화율의 매개효과	99
<그림 4-23>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초기값 간의 공격성 초기값의 매개효과	100
<그림 4-24>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변화율간의 공격성 초기값의 매개효과	101
<그림 4-25>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변화율 간의 공격성 변화율의 매개효과	101

국문초록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부적응의 문제는 청소년들과 관련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부정적 양육방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수준을 분석하고, 이러한 변수들 관계에서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역할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수준을 높여 주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는 데 있다.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적응에 곤란을 겪는 영향요인 가운데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부모의 양육방식과 우울 및 공격성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의 발달단계적 관계 및 개인 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부모의 양육방식은 독립변수로 우울과 공격성을 매개변수로 선정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시간적인 변화를 통하여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수준의 추이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하여 발표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2013년~2016년)이다.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부정적 양육방식이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우울과 공격성이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 따른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은 SPSS 24와 AMOS 24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자료 분석방법은 첫째, 패널데이터에 대한 점검과 관련하여 주요 변수의 특성과 자료 분포의 정규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둘째, 본 연구변수들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셋째, 변화모형 설정과 발달궤적 추정을 위해 신뢰도분석을 하였고, 적합도 분석은 무변화 모형과 선형모형의 검증을 위해 실시하였다. 넷째, 다 변량잠재 성장모형 분석은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청소년 우울수준의 무변화 모형과 선형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선형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 요인의 무변화 모형과 선형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선형모형**의 적합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 요인의 무변화 모형과 선형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선형모형의 적합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 방식과 학교생활적응의 발달궤적 간 직접적인 관계를 분석한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의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부정적 양육방식의 우울과 공격성의 발달궤적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분석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학교생활적응과 우울 및 공격성에 대한 발달궤적 간 직접적인 관계를 분석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바람직한 발달을 위해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위험요인들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개입에 대한 필요성과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ABSTRACT

The Longitudinal Study of The Effects of Parental Parenting Styles on Adolescent Adaptation to School Life

-Focusing on Mediation Effects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Lee, Kwang Sun

Advisor: Prof. Park, Hwie Seo, Ph.D.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It is necessary for us to recognize that the problem of maladjustment in school life is not a mere problem associated with young people but a problem of all of us on the social level. The purpose of this study, starting from this awareness, is to analyze the level of parental positive and negative parenting perceived by adolescents on school adjustment. The analysis of mediating role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in relation to these variables suggests basic data that can be used to enhance the adaptation level of adolescents to school life.

Among the factors affecting adolescents' difficulty in adapting to school life, this study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parenting style, depression and aggression, development trajectory of school life adaptation, and the difference according to individual time flow. For this purpose, the parental parenting method was selected as independent variable, depression and aggression as parameters, and analyzed the change of the adaptation level of schoolchild through time changes in the factors affecting school life

adaptation.

The data for this study are the Korea Child and Youth Panel Survey (2013 ~ 2016), which was published by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Based on these data, we analyzed the effect of parental positive and negative parenting styles on school adjustment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variables. To analyze these things, The research hypothesis based on the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was set up. The analysis for hypothesis testing was analyzed using SPSS 24 and AMOS 24 program.

The main data analysis method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main variables and the regularity of data distribution, we conducted descriptive statistics. Second, we conducted the correlation analysis of these research variables, Third, reliability analysis was performed to establish change model and development trajectory estimation, and the goodness of fit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unchanged and linear models. Fourth,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 goodness of fit of the linear model was found to be appropriate when the unchanged model and the goodness of fit of the linear model of the youth depression level were analyzed. When the unchanged model of the aggression factor and the goodness of fit of the linear model were compared, the goodness of fit of the linear model was found to be better. When the unchanged model of the school adjustment factors were compared with the goodness of fit of the linear model, the goodness of fit of the linear model was found to be better. The validity of the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which analyzes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the

adaptation to school life and positive and negative parenting styles, has been confirmed. The validity of the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which analyzes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of positive parenting style and negative parenting style, has been confirmed. The appropriateness of the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which analyzes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developmental trajectories for school life adjustment and depression and aggression, has been confirm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empirical analysis, we again emphasized the necessity for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risk factors to school life adaptation and the importance of parents' parenting methods for the healthy growth and desirable development of adolescents.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 많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학교를 떠나는 학생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 자료(2018)에 따르면, 2016학년도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학업 중단율은 전체 학생 대비 0.8%(47,663명)이었으며, 2017학년도에는 0.9%(50,057명)로 전년 대비 0.1%p(2,394명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생 학업 중단율은 0.6%(16,422명), 중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0.7%(9,129명), 고등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1.5%(24,506명)로 초등학생은 2016학년도 수준이었지만,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2016학년도와 비교하여 0.1%p 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생들의 학업중단문제는 질병, 가사, 해외출국, 학교폭력, 학칙위반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생활부적응과 관련된 대인관계, 학습부진, 학교규칙, 정서문제 등 심리적 원인들도 포함된다(양지원, 2015).

현재 우리사회는 청소년들의 일탈행위와 학생간의 협박이나 폭행 등의 사건들에 대해서 자주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의 폭력성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청소년들의 폭력성은 학교 내의 학생간의 왕따 문제와 학생간의 폭행 등에서 비롯되는 학교부적응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폭행 가해자의 40%가 학교로부터 제적과 퇴학처분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이 대부분이라는 결과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부적응의 문제가 사회의 범죄적 문제화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서울신문, 2018. 5. 4). 따라서 청소년 시기는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정서적·사회적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도기로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변동대응능력을 갖추고 개인들에게 적합한 발달과업을 잘 수행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박성민 외, 2017).

이와 같이 청소년 자신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들에게 학교적응 문제는 매우 중요함으로 청소년들이 학교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원인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학교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로 첫째, 부모의 양육방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부모의 양육방식은 1차적으로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우선적인 영향을 주며, 가정에서의 만족스러운 생활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반면에 부모의 양육방식이 통제적이고 엄격한 방식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인성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와의 갈등적인 감정의 표출을 공격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고, 과보호적인 양육방식은 지나친 자기중심적인 가치관과 행태를 부여함으로써 학교생활에 있어서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저해하게 된다. 둘째, 학업에 대한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은 학습부진 및 학업성적 저하 등으로 인해 교사와 급우관계에서도 고립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은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학교생활적응을 어렵게 할 수 밖에 없다. 이는 학업에 대한 성취도와 흥미는 학교생활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Jo & Lee(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는 내용이다. 셋째,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 친구들 간의 정서적 지지는 자아형성은 물론 학습능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 청소년기에는 친구와의 관계는 정서적 동질자이며 원조자로서 친구집단을 통하여 나름대로 소속감을 겪게 된다(최해미, 2018).

부모의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이다경, 2015; 최진, 2016; 구혜정, 2017; 한진숙, 2018; 이주윤, 2018 등)들과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황희정, 2013; 정재영, 2012; 황대현, 2013; 박석민, 2014; 이다경, 2015; 강정남, 2017; 김지윤, 2017 등)들이 있다. 그리고 자녀의 우울은 학교생활적응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이미지, 2014; 안윤정·현진희, 2015; 한혜정, 2016; 황진현, 2016; 유지애·김옥진, 2018; 유지혜·유혜승, 2018

등)들과 자녀의 공격성은 학교생활적응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박미향, 2014; 성효정, 2014; 최재복, 2015; 박광원·강현욱, 2016; 박소윤, 2017; 차윤님, 2018; 유지혜·유혜승, 2018)들을 통해서 부모의 양육방식으로 인한 자녀의 우울과 공격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적응에 곤란을 겪는 영향요인 가운데 부모의 양육방식에 의한 청소년들의 우울과 공격성의 변인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의 한계점으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단일연도나 특정시점에 국한되어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청소년 계층에 대한 변화를 탐구하는 추세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우울 및 공격성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의 발달궤적 관계 및 개인 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는데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방식은 독립변수로 우울과 공격성을 매개변수로 선정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시간적인 변화를 통하여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수준의 추이변화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횡단적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바람직한 발달을 위해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위험요인들을 사전예방 및 사후개입에 대한 정책적 방안 및 부모의 양육방식에 의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 연구문제1.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방식, 우울, 공격성으로 인한 학교생활적응의 실태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2.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방식, 우울, 공격성으로 인한 학교생활적응의 개인차는 있는가?

연구문제3. 부모의 양육방식은 우울, 공격성, 학교생활적응의 변화궤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4. 우울은 부모의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의 변화궤적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5. 공격성은 부모의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의 변화궤적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연구범위와 관련하여 공간적, 시간적, 내용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첫째, 공간적 범위에서 보면, 본 연구는 중1~고1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하여 발표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중1~고1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중1~고1 학생들에 대한 표본은 연구결과의 일반화와 관련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장점과도 관련된다.

둘째, 시간적인 차원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2013년~2016년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그중 독립변수인 부모의 양육방식은 2013년(중1),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과 매개변수인 우울, 공격성은 2014년~2016년(중2~고1)까지 자료를 분석하였다.

셋째,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본 연구는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탐구하는 실증 연구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해마다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현상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한 자료를 공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2013년~2016년에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표본의 대표성은 청소년이라는 같은 대상에 대해서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서 반복적으로 조사한 패널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증분석에 있어서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용이하고 개인과 집단변화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진행하였다.

첫째,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우울과 공격성이 매개하는 각 변인의 관련성을 추정하는 분석을 위한 이론적인 논의와 관련하여 외국문헌과 국내문헌, 관련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 그리고 본 연구주제와 관련된 언론보도 자료와 기타 정기간행물 등의 자료를 반영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의 기초적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발표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 따른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셋째, 가설의 검증을 위한 분석은 SPSS 24와 AMOS 24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자료 분석방법은 패널데이터에 대한 점검과 관련하여 주요 변수의 특성과 자료 분포의 정규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본 연구변수들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변화모형 설정과 발달궤적 추정을 위해 신뢰도분석을 하였고, 적합도 분석은 무 변화모형과 선형모형의 검증을 위해 실시하였다. 다 변량 잠재 성장모형 분석은 매개효과와 각 변수의 직·간접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부모의 양육방식

1. 부모의 양육방식의 개념

부모는 자녀들의 성장과정에서 필요한 생리적인 욕구, 심리적인 욕구와 관련된 대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들의 인격형성과 학습 동기와 태도 그리고 사회화 등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다(정택용, 2016).

부모의 양육방식은 연구자에 따라서 양육방식 외에 양육태도나 양육행동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개념 역시 관점에 따라서 약간은 다르게 정의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보이는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의 특성이나 태도”를 나타낸다. 즉 부모나 보호자가 그들의 생활방식의 범위 안에서 나타나는 내재적 태도와 외현적 태도로서 부모가 자녀들을 상대할 때 나타나는 지속적이고 일반적인 행동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숙, 2017).

따라서 부모의 양육방식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관점자의 차원에서 양육방식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양육자와 피 양육자가 양육자의 양육방식에 대해서 서로 비슷하게 양육태도를 느낄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르게 지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유는 사람들이 사실이나 사물에 대해서 인식할 때 있는 객체를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개인의 지각방식은 물론이고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상호 간의 초기적 경험은 자녀의 심리적 특성과 성격형성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김지현, 2014).

부모양육방식의 개념에 대해서 박윤정(2009)은 부모의 양육방식이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행동이나 태도”으로 정의하였으며, 김영봉(2014)은 부모의 양육방식이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취하게 되는 일반적인 태도나 행동방식”으로 정의하였다.

김지현(2014)은 부모의 양육방식이란 “부모가 그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보여 주는 행동에 대한 경향이자 반응양식”으로 정의하였으며, 김민지(2016)는 부모의 양육방식이란 “부모의 태도나 행동들이 자녀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지각한 부모의 양육방식”으로 정의하였다.

정택용(2016)은 부모의 양육방식이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애정적인 가치관을 보유하여 자녀에 대해서 교육하는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나 태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양육방식의 기능은 자녀의 청소년기 성장에 있어서 그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부모의 행동양식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권윤정(2017)은 부모의 양육방식이란 “부모나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할 때 보여주는 보편적인 행동방식이고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모와 자녀의 일관성 있는 반응방식”으로 정의하였다.

김영숙(2017)은 부모의 양육방식을 “자녀를 수용하고 존중해주는 애정적 양육태도와 자녀에게 냉담하고 억압적인 태도와 체벌을 통해 훈육하는 부정적 양육태도”라고 하였으며, 김서연(2018)은 부모의 양육방식이란 “자녀들이 성장과정에서 청소년기까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행동방식”으로 정의하였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자들의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정의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의 부모의 양육방식이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양육자의 일반적인 행동방식과 태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에서 정의한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부모의 양육방식의 개념

연구자	부모의 양육방식의 개념
박윤정 (2009)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태도 및 행동
김영봉 (2014)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취하게 되는 일반적인 태도나 행동방식
김지현 (2014)	부모가 그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보여 주는 행동에 대한 경향이자 반응양식
김민지 (2016)	부모의 태도나 행동들이 자녀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지각한 부모의 양육방식
정택용 (2016)	부모가 자녀에 대한 애정적인 가치관을 보유하여 자녀에 대해서 교육하는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나 태도
권윤정 (2017)	부모나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할 때 보여주는 보편적인 행동방식이고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모와 자녀의 일관성 있는 반응방식
김영숙 (2017)	자녀를 수용하고 존중해주는 애정적 양육태도와 자녀에게 냉담하고 억압적인 태도와 체벌을 통해 훈육하는 부정적 양육태도
김서연 (2018)	자녀들이 성장과정에서 청소년기까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행동방식
본 연구의 개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양육자의 일반적인 행동방식과 태도

2. 부모의 양육방식 유형

1) 부모의 양육방식의 유형

일반적으로 부모의 양육방식의 유형은 부모의 ‘애정’ 과 ‘통제’ 의 수준에 따라 부모의 양육방식 유형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

다.

첫째, 자녀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고 대신에 통제를 위주로 하는 양육방식에는 강압적 양육방식, 거부적 양육방식, 권위적 양육방식, 지배적 양육방식 등이 해당된다.

둘째, 강한 ‘애정’ 과 ‘통제’ 가 같이 적용되는 양육방식으로는 과보호적 양육방식과 과잉간섭 적 양육방식 등이 있다.

셋째, 부모의 ‘애정’ 과 ‘통제’ 의 기준이 아닌 자녀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면서 애정을 보이는 양육방식으로 애정적 양육방식, 수용적 양육방식, 민주적 양육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민지, 2016). 그동안 선행연구자들은 개별적인 차원에서 부모 양육방식의 구성요인을 제시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부모 양육방식의 구성요인을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방식을 처음으로 체계화 한 Symonds(1949)가 양육방식의 구성요소로 제시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관계의 수용으로서 부모의 간섭형과 불안형 그리고 거부형으로서 소극적인 거부형과 적극적 거부형을, 지배형으로는 기대적 지배형과 엄격형을, 복종형으로는 복종형과 익애형 복종형의 두 차원으로 분류한 이후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일반적인 부모양육방식의 유형으로 분류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여 보면, 선행연구에서의 부모양육방식의 유형으로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해 Becker(1964)는 온정형과 적대형, 허용형과 통제형, 지나친 관심형과 침착한 방관형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정은선(2008)은 부모 돌봄과 과보호, 박윤정(2009)은 온정적 양육방식과 거부적·권위적 양육방식, 오미섭(2013)은 비일관성, 합리적 설명, 과잉기대, 부모애정, 과잉간섭, 부모감독, 김영봉(2014)은 양육방식의 구성요소로 애정, 비일관성, 감독, 방치,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합리적 설명 등의 하위 여덟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김지현(2014)은 적대형-애정형, 통제형-자율형, 비성취형-성취형, 비합리형-합리형, 주정호(2014)는 애정적 방식, 거부적 방식, 자율적 방식, 통제적 방식, 이다경(2015)은 거부적 양육방식, 과보호적 양육방식, 애정적 양육방식, 최영걸(2015)은 과잉, 애정·합리적 설명, 감독,

비일관성, 한성희(2015)는 애정적 양육방식과 거부적 양육방식, 김민지(2016)는 거부적 양육방식, 애정적 양육방식, 과보호적 양육방식, 정택용(2016)은 적대형-애정형, 통제형-자율형, 비성취형-성취형, 비합리형-합리형으로 구분하였다. 최윤숙(2016)은 거부적 방식, 자율적 방식, 애정적 방식, 통제적 방식, 황진현(2016)은 애정, 과잉기대, 과잉간섭, 일관성, 합리적 설명, 감독, 권윤정(2017)은 비일관성, 과잉기대, 애정, 합리적 설명, 과잉간섭, 감독, 김영숙(2017)은 애정적 양육방식과 거부적 양육방식, 김서연(2018)은 애정적 양육방식과 거부적 양육방식, 백은라(2018)는 과보호, 학대, 합리적 설명, 이주운(2018)은 수용거부, 자율통제, 성취기대 등을 부모양육방식의 유형으로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이상과 같은 일반적인 부모의 양육방식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표 2-2> 부모의 양육방식 유형

연구자	부모의 양육방식 유형
Becker(1964)	온정 형과 적대형, 허용 형과 통제형, 지나친 관심형과 침착한 방관형
정은선(2008)	부모 돌봄과 과보호
박윤정(2009)	온정적 양육방식과 거부적·권위적 양육방식
오미섭(2013)	비일관성, 합리적 설명, 과잉기대, 부모애정, 과잉간섭, 부모감독
김영봉(2014)	양육방식의 구성요소로 애정, 비일관성, 감독, 방치,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합리적 설명
김지현(2014)	적대형-애정형, 통제형-자율형, 비성취형-성취형, 비합리형-합리형
주정호(2014)	애정적 방식, 거부적 방식, 자율적 방식, 통제적 방식
이다경(2015)	거부적 양육방식, 과보호적 양육방식, 애정적 양육방식
최영걸(2015)	과잉, 애정·합리적 설명, 감독, 비일관성
한성희(2015)	애정적 양육방식과 거부적 양육방식

김민지(2016)	거부적 양육방식, 애정적 양육방식, 과보호적 양육방식
정택용(2016)	적대형-애정형, 통제형-자율형, 비성취형-성취형, 비합리형-합리형
최윤숙(2016)	거부적 방식, 자율적 방식, 애정적 방식, 통제적 방식
황진현(2016)	애정, 과잉기대, 과잉간섭, 일관성, 합리적 설명, 감독
권윤정(2017)	비일관성, 과잉기대, 애정, 합리적 설명, 과잉간섭, 감독
김영숙(2017)	애정적 양육방식과 거부적 양육방식
김서연(2018)	애정적 양육방식과 거부적 양육방식
백은라(2018)	과보호, 학대, 합리적 설명
이주운(2018)	수용거부, 자율통제, 성취기대
본 연구의 유형	긍정적 양육방식, 부정적 양육방식

2) 본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방식의 유형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방식의 유형을 다양하게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자녀가 인식한 부모의 양육방식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합리적 설명·애정·감독의 양육방식을 전체적으로 통합하여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으로 설정하고, 과잉간섭·과잉기대·비일관성을 부정적 양육방식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 2 절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1. 학교생활적응의 개념

청소년¹⁾들에게 있어서 학교라는 장소의 의미는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지식의 습득은 물론 훗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규범을 습득하고 가치를 정립하는 제2의 사회화 과정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생활은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사회화와 정체성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얼마만큼 건전하게 학교생활을 영위하느냐는 것은 성년이 되었을 때 사회생활에서의 성공을 예측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교생활적응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김태현·김석우, 2012).

적응이란 “인간이 스스로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하여 환경에 알맞도록 자신을 적응시키거나 환경을 변화시켜 자신과 환경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해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였을 때 청소년들에게 학교생활적응은 아주 중요하다.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을 통해서 정서적·신체적·교육적·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성장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들이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준거 틀이라고 할 수 있다(김지현, 2014).

학교생활적응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지만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인간관계나 학교 규칙의 준수나 학습활동 등에 있어서 긍정적인 행동을 보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때,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신정희, 2010).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교생활적응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청소년들이 얼마나 학교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지와 그 친구들과 우호적이고 적극적인 인간관계를 구축해 가는 것은 사회에서의 구성원으로서 적응

1) 청소년은 어린이와 청년의 중간 시기이다. 흔히 ‘청소년’이라 하면(이하 연령은 전부 ‘만 나이’)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통상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시기에 해당된다. 청소년에 대한 연령 규정은 법령이나 규범에 따라 다른데, 대한민국의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 사이의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보호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을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을 위한 토대로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가 별로 없고 혼자인 상태가 되어 있거나 학우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친구집단에 대해서 반항적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

둘째 학교수업이란 단순하게 지식만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되어지는 형태로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 학교 내에서 교사와의 관계는 단순하게 수업 이외에도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부분을 지도하며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사와의 관계에서 얼마만큼 균형 있게 생활하고 있는지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균형 있게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학생들은 거부적이고 반항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청소년에게 “성적과 관련한 수업성취도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것으로 부적응하게 되면 수업태도가 바르지 못하며 학습보다는 놀이에 더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심적 부담감이나 권태감을” 가지게 된다(김백하, 2013).

이러한 학교생활적응은 그 구성개념에 대한 관점 또한 다양하며 학교생활적응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다.

학교생활적응의 개념에 대해서 Ladd, Kochendetfer & Colernan(1996)은 학교생활적응을 “학생들 스스로가 학교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과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학교생활을 긍정적으로 수행하는 정도”라고 하였다.

신정희(2010)는 학교생활적응이란 “학교라는 환경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태도와 관심을 유지하면서 학교환경과 학생 사이의 향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행복한 학교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오미섭(2013)은 “학교에서의 학생들은 학교환경과 행동이 잘 조화되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감으로써 학교구성원인 교사 및 다른 학생 등과 건설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해 가며 적극적인 수업태도와 학교규범에 순응하

여 학생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김영봉(2014)은 학교생활적응은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행사활동, 특별활동, 기타 교과활동 등에서 개인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끼고 균형 있는 관계를 지속하며,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가 균형 있게 잘 조화되어 행복스러운 상태에 이르는 경우”로 정의된다고 하였다.

김지현(2014)은 학교생활적응이란 “학생들이 욕구를 충족하고 자신과 학교환경 간에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반적인 학교환경에 알맞게 자신을 적응시키거나 학교환경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김민지(2016)는 학교생활적응이란 “학생들이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학교환경과 자신사이의 균형을 유지해나가는 적극적인 상호작용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정택용(2016)은 학교생활적응은 “학교라는 환경에서 학생들의 상호작용과 현재에 처해 있는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일체의 노력”으로 보았다. 덧붙여 학생들 간의 원활한 인간관계와 학습에 대한 성취 그리고 학생으로서의 부합한 행동을 함으로써, 학교생활에 대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 학교생활적응이라고 판단하였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자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개념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의 학교생활적응이란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학교환경과 유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교생활이 만족스러운 상태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에서 정의한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개념은 <표 2-3>과 같다.

<표 2-3> 학교생활적응의 개념

연구자	학교생활적응의 개념
Ladd, Kochendetter &	학생들 스스로가 학교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과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학교생활을 긍정적으로 수행하는 정도

Colernan (1996)	
신정희 (2010)	학교라는 환경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태도와 관심을 유지하면서 학교환경과 학생 사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행복한 학교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
오미섭 (2013)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학교환경과 행동이 잘 조화되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감으로써 학교구성원인 교사 및 다른 학생 등과 건설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해 가며 적극적인 수업태도와 학교규범에 순응하여 학생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가는 것
김영봉 (2014)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행사활동, 특별활동, 기타 교과활동 등에서 개인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끼고 균형 있는 관계를 지속하며,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가 균형 있게 잘 조화되어 행복스러운 상태에 이르는 경우
김지현 (2014)	학생들이 욕구를 충족하고 자신과 학교환경 간에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반적인 학교환경에 알맞게 자신을 적응시키거나 학교환경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과정
김민지 (2016)	학생들이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학교환경과 자신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 나가는 적극적인 상호작용 능력
정택용 (2016)	학교라는 환경에서 학생들의 상호작용과 현재에 처해 있는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일체의 노력
본 연구의 개념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학교환경과 유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교생활이 만족스러운 상태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2. 학교생활적응의 구성요소

일반적인 학교생활적응의 구성요소로 분류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여 보면, 선행연구에서의 학교생활적응 구성요소로 강지훈(2004)은 친구관계, 리더십, 소속감, 인기도, 신주혜(2009)는 학업적·사회적·정의적 적응, 신정희(2010)는 규칙

준수, 교우관계, 학교행사참여, 학습활동, 담임교사와의 관계, 박순주(2011)는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정수정(2012)은 일반적응, 환경적 적응, 사회적 적응, 학업적 적응, 우수경·김기예(2013)는 일반적응, 환경적 적응, 사회적 적응, 학업적 적응, 김영봉(2014)은 학교생활적응은 학습생활, 학교규칙, 친구관계, 교사관계, 김지현(2014)은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학업에 대한 방식, 학교규범의 준수, 성적에 대한 태도, 이미지(2014)는 일반적응, 학업적 적응, 환경적 적응, 사회적 적응, 최영걸(2015)은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한성희(2015)는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김민지(2016)는 학교생활, 학교교사, 학교친구, 학교공부, 정택용(2016)은 학업관계, 교사관계, 학교환경, 교우관계, 권윤정(2017)은 교사관계, 학교규칙, 교우관계, 학습활동, 김영숙(2017)은 교사관계, 학교규칙, 교우관계, 학습활동, 박소윤(2017)은 성적평가, 학교규칙, 학습활동 등을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이성과 같은 일반적인 학교생활적응의 구성요소에 대한 선행연구는 <표 2-4>와 같다.

<표 2-4> 학교생활적응의 구성요소

연구자	학교생활적응의 구성요소
강지훈(2004)	친구관계, 리더십, 소속감, 인기도
신주혜(2009)	학업적·사회적·정의적 적응
신정희(2010)	규칙준수, 교우관계, 학교행사참여, 학습활동, 담임교사와의 관계
박순주(2011)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정수정(2012)	일반적응, 환경적 적응, 사회적 적응, 학업적 적응
우수경·김기예(2013)	일반적응, 환경적 적응, 사회적 적응, 학업적 적응
김영봉(2014)	학습생활, 학교규칙, 친구관계, 교사관계

김지현(2014)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학업에 대한 방식, 학교규범의 준수, 성적에 대한 태도
이미지(2014)	일반적응, 학업적 적응, 환경적 적응, 사회적 적응
최영걸(2015)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한성희(2015)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김민지(2016)	학교생활, 학교교사, 학교친구, 학교공부
정택용(2016)	학업관계, 교사관계, 학교환경, 교우관계
권윤정(2017)	교사관계, 학교규칙, 교우관계, 학습활동
김영숙(2017)	교사관계, 학교규칙, 교우관계, 학습활동
박소윤(2017)	성적평가, 학교규칙, 학습활동
본 연구의 구성요소	성적평가, 학교규칙, 학습활동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의 구성요소를 분류하였는데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 구성요소에 대해서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규칙, 학습활동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학교생활적응의 구성요소를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규칙, 학습활동으로 선정하여 부모의 양육방식과 우울 그리고 공격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3. 학교생활적응의 주요이론

1). 자기통제이론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자기통제이론(Self-control Theory)을 개발한 Gottfredson & Hirschi(1990)의 주장에 의하면, 가정은 자기 통제력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며, 7-8세 정도의 어린시기에 가정에서 개인의 자

기 통제력은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자녀양육과정에서 부모는 자녀의 자기 통제력의 형성에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유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첫째,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monitoring), 둘째, 잘못에 대한 행동 인지(recognition), 셋째, 부모와의 애착(attachment), 넷째, 잘못된 행동의 적절한 처벌(punishment)등이다. 개인의 자기통제력은 이러한 자녀양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가장 중요한 범죄나 유사행위의 밀접한 원인이라고 제시하였다. 자기 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은 장기적인 이해를 고려하지 못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낮은 자기 통제력을 구성하는 6가지의 요인을 다음과 같다. ① 욕구충족이 즉각적 이여야 하고, ② 손쉽고 단순한 욕구충족 ③ 위험하며 짜릿하고 흥분되는 행동선호 ④ 장기적인 이익에 대해 노력하지 않고 무관심하다 ⑤ 지식습득을 위한 계획이나 기술이 부족하다. ⑥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있다. 자기 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흥분하기 쉽고 화를 잘 내며, 정신적인 것 보다는 육체적인 활동을 좋아하며, 위험스러운 행위나 단순하고 쉬운 일을 즐겨하며, 자기중심적이고 충동적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즉각적인 욕구나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만이나 폭력등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범죄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자기 통제력이 높은 사람들은 화를 잘 참고, 위험성을 추구하지 않고, 다소 복잡해도 진취적이고 정신적인 활동을 선호하며, 즉각적인 욕구를 잘 억제하는 등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라고 한다. 이러한 개인들은 타인의 의도와 기대를 이해하게 된다. 자기통제이론의 일반성은 모든 공간과 시간적, 다양한 집단의 범죄유형의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범죄에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자기 통제력이 미치는 효과는 성별, 연령 구분 없이 모든 집단에게도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 가장 중요한 범죄발생의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생활적응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자기통제이론도 있지만 학교생활적응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다음의 일반 긴장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2) 일반긴장이론

본 연구에서는(Agnew, 1992)의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을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일반긴장이론에 틀을 적용하면 부모양육태도에 의한 우울과 공격성, 부정적 감정, 조건요인, 대처전략이라는 핵심 요소로 영향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다.

일반긴장이론의 세 가지 핵심으로 긴장요인, 부정적 감정, 조건요인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의 비행요인으로 이어지는 경로의 출발점이 긴장요인이다. 일반긴장이론에서의 긴장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우받기를 원하는데 대우 받지 못하는 관계”라고 정의되어 있다(Agnew, 1992). 일반긴장이론의 3가지 핵심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긴장요인의 3가지는 ① ‘긍정적으로 가치를 갖는 목적달성의 실패’이다. 이에 대한 긴장의 예로는 또래친구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학교 성적을 좋게 얻지 못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② 긍정적 가치를 갖는 자극이나 소멸, 긴장의 예로는, 친구나 친척의 상실, 좋은 관계의 종결, 다른 학교로의 전학 등을 들 수 있다. ③ 부정적 자극경험의 예로는, 부모에 의한 방임이나 학대, 범죄피해경험, 신체적 체벌경험등과(김재엽 외 2008, 송아영·임혜진·왕정희, 2011). 학교·또래·부모긴장(심현진외, 2014)등이다.

둘째, 긴장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부정적 감정을 경험한다고 하여 모두 비행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건적 상황을 규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긴장이 비행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건전하게 해소될 것인지 적절한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조건요인이라고 한다. 일반긴장이론은 단순히 부정적 감정이나 긴장만을 영향요인으로 비행을 간주하지는 않으며, 조건변수로 사회학습이론과 사회통제이론을 비행의 원인변수로 요인들을 투입하여 이론적으로 통합하려고 시도한다(김재엽외, 2008). 조건요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자긍심, 도덕적 신념, 자기통제

력,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부모애착, 사회적 통제, 비행친구와의 접촉 등을 들 수 있다(문병욱·황혜원, 2006).

셋째, 부정적 감정의 긴장에 대응하는 정서적 반응의 대표적인 예로는 우울이나 좌절, 공격성, 분노, 스트레스, 심리적 위축, 절망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다음 비행의 발생여부가 결정된다.

본 연구가 첫 번째로 관심을 갖는 요인은 청소년의 우울이다. 청소년의 우울은 짜증스럽고 공허한 기분과 함께 수반되는 인지·신체적 기능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개인의 부적응 적 증상이라고 하며, 개인의 삶을 매우 고통스럽게 만드는 정신장애중 하나이다. 특히 청소년의 초기 우울증 증상은 슬픈 모습과 달리 오히려 과도하게 명랑한 모습, 가슴 두근거림, 예민하게 굴거나 식욕부진, 무력감이나 우울한 기분, 과잉행동 등을 보이고, 피로감, 복통 등의 검사 상 이상소견이 없는 신체적인 문제를 호소하기도 한데 이게 바로 이른바 가면우울증일 수 있다. 십 대 시절에 감정의 기복을 겪으면서 일정 기간 기분이 나빠지거나 우울해질 수 있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우울증은 다르다. 십 대 청소년이 우울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아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로 느껴진다거나,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거나, 가족 관계가 좋지 않은 것 등은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 성지향성, 환경적인 스트레스,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의 고립감 또한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우울의 결과변수와 영향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가 관심을 갖는 두 번째 요인은 청소년의 공격성이다. 청소년의 공격성은 대인관계 문제, 품행장애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적응 등 다양한 유형의 반사회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채진영, 2012) 문제는 몇몇 선행연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심각한 수준의 공격적 행동이 점점 지능화 되고, 그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공격성 문제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공격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결과변수나 영향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반긴장이론의 관점에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학교생활적응의 영향요인은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방식과 우울, 공격성이다. 즉 부모로부터 부정적 양육방식을 받는 청소년은 부정적 감정에 해당하는 우울과 공격성을 유발하고, 우울과 공격성으로 인해 학교생활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우울과 공격성연구는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 우울,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의 영향관계를 일반긴장이론의 시각에서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청소년에게 있어 긴장요인인 학교생활적응, 우울과 공격성은 긴장을 유발시키고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며,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 결과를 나타낸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제 3 절 우울

1. 우울의 개념

정서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적은 상태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면서 변화하는 환경에도 잘 대처하고 적응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는 마치 신체적으로 건강할 경우 단순하게 몸이 허약하지 않거나 단순히 질병이 없다거나 하는 수동적인 상태만이 아니라 운동을 하거나 생활습관을 좋게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려는 개념과 같은 것이다. 우울이란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기초로 하여 침울한 기분이나 슬픈 감정 등을 나타내며, 개인이 활동하게 되는 수준과 욕구가 떨어짐으로 인하여 흥미를 매사에 잃게 되는 증상을 수반하게 된다. ‘심리적 감기’로 표현되는 우울은 일반적인 감기증상처럼 가벼운 반응에

서부터 출발하여 정신병적 우울, 특별한 의학적인 문제로 인한 우울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 주거나, 우울의 결과 자체로서 보고되어 오고 있다. 진실 된 의미의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정서에 해당하는 우울은 적으면서 만족감 같은 긍정적인 정서의 수준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정은선, 2008).

2. 우울의 유형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성적우선주의의 풍토로 인하여 공부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학창시절 동안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성적에 민감해지면서 부모는 물론이고 교사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심리적인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한 청소년들은 성장하는 동안 나타나는 다양한 신체적인 변화에 대한 경험뿐 아니라 정체성 정립이라는 발달상의 과업도 완수해 나가야 하면서 환경에 대한 변동능력과 그들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도 적응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유형의 심리적인 불안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증가로 인하여 일탈행위와 심리적 부적응과 사회적 부적응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인간관계의 확장으로 인하여 형제와의 관계 친구나 이성관계, 선생님과 관계 속에서 열등감과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고, 부모와의 갈등, 성적부진과 선생님과 관계, 절친한 친구와의 다툼,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과정 등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갈등에 따른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서 정신건강에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기도 한다. 특히 아동에 비해 청소년기는 의사결정에 있어 친구들의 생각이나 행동들이 자신의 사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친구에게 따돌림 당하거나 자신을 이해해주는 친구가 없을 때 우울감에 빠지기 쉽다(제미영, 2014).

Anderson(1984)은 성인의 우울과 다른 차원에서 청소년기 우울의 두 가지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첫째, 청소년기에 보여 지는 발달단계로서의 특징으로 먼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습득하며, 자신에 대한 자존에의 경험과 친구관계를 구축하며, 갑작스러운 생리적인 변화를 겪기도 한다. 그럼으로 인하여 친구나 본인들 스스로가 비판적인 입장을 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성인들의 우울증상을 의미하는 개인 존재감의 무시와 절망 그리고 무기력감 등 우울한 감정 이외의 또 다른 행동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기의 전기 시기에는 청소년들이 아동들처럼 생각하기보다는 행동화하는 경향이 우선시 된다는 사실이다. 우울증세가 나타난 청소년들은 본인들의 방에서 스스로 방어벽을 만들고 지내기 때문에 비활동적이며, 그럼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을 자신 혼자서 지내는 전형적인 특성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우울증상은 잦은 감정의 변화는 물론이고 산만하거나 일탈행동, 무기력과 짜증 등을 보이기 때문에 어른들의 우울증상과는 또 다른 특징을 보인다(이미지, 2014).

이러한 우울에 대해서 이다경(2015)은 우울이란 “슬픈 감정이나 불안 감정, 절망감, 우울감을 계속적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유쾌함이나 즐거움이 줄어들거나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 것” 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최진(2016)은 우울이란 “사람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대인관계, 인지, 태도, 판단, 심리장애, 지각 등의 광범위한 부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마음의 상태” 라고 정의하면서 우울의 증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는 불면증, 두통, 피로감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호소하지 않고서 나타나게 되는 신체적 증상은 물론이고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행동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정의한 우울에 대한 개념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의 우울이란 “인간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부정적으로 느끼게 되는 일체의 심리적 불안정과 사회·심리적 부적응 행동 장애를 갖게 되는 것” 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제 4 절 공격성

1. 공격성의 개념

공격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욕구 중의 하나로써 개인의 공격적인 감정이나 충동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인 상태에서부터 외현적으로 나타나는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반사회적인 부적응적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공격성은 개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증오나 적의와도 관련성이 있는 모든 유형의 파괴적인 행동인데 그 중에서도 악의를 품은 발언이나 육체적인 타격 등을 행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실을 주려고 하는 행동과 그와 같은 행위를 하려고 하는 충동이나 욕구라고 말할 수 있다(박지영, 2010).

구체적인 차원에서 공격성의 특징은 자신의 내적요인과 외적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발달하게 되는 심리적인 특성이다. 먼저 내적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기질, 자기존중감, 부적응적인 사고방식, 생물학적인 요인, 심리적 특성과 성격 등이 있으며, 외적인 요인으로는 사회의 구조적 특성, 부모의 양육태도, 친구와의 관계, 선생님의 지지, 대중매체, 부모애착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 중에서 청소년의 공격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연구주제가 되어 온 것 중의 하나가 부모의 양육방식이다(이다경, 2015).

이러한 공격성에 대해서 성환재(2012)는 “타인이 원하지 않는 행위로 불쾌감을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불편하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공격성을 정의하였고, 황희정(2013)은 공격성이란 “타인에게 상해를 가할 목적을 가진 신체적, 언어적 행동, 위협적 자기방어와 태도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이나 의도를 담은 생각이나 정서”로 공격성을 정의하였다.

2. 공격성의 유형

공격성의 유형과 관련하여, 공격성의 유형은 연구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그동안 선행연구자들이 분류한 공격성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rodi, Macaulay & Thome(1977)는 간접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직접적 공격성, 신체적 공격성으로 분류하였는데, 간접적 공격성은 공격성을 일으킨 당사자 외의 다른 타인을 향하거나 특별한 대상이 없이 공격하는 경우를 말하고, 언어적 공격성은 언어를 수단으로 하여 공격 상대에게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모든 반응들을, 직접적 공격성은 자신을 화나게 만든 사람을 직접 공격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신체적 공격성은 상대방 공격 대상자에게 신체적인 피해나 상처를 주려고 의도하거나 물건을 파괴시키는 모든 반응들을 말한다. Mussen, Conger & Kagan(1979)은 공격성의 표현유형에 의거하여 외부로 표현되지 않는 상상 등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내재적 공격성과 언어나 행동을 통하여 밖으로 표출되게 되는 행동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였다. Feshbach(1983)는 적대적 공격성과 도구적 공격성, 비합법적 공격성과 합법적 공격성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에서 적대적 공격성은 “공격행동이 즉각적인 분노와 충동에 의해 나타나는 경우”라고 말하고, 도구적 공격성을 “타인을 위협하여 목적달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기위한 행동”이라고 하였다. 또한, 비합법적인 공격성은 “행동이 사회성원들에게 용인되지 않는 것”이며, 합법적 공격성은 “위험한 상황이나 행동으로부터 그가 속해 있는 사회적 역할 내에서 욕구에 의한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이다(강귀애, 2015).

그리고 강지훈(2004)은 관계적, 주도적, 반응적 공격성을 박지영(2010)은 부정성, 간접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신체적 공격성, 성환재(2012)는 우회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신체적 공격성, 정재영(2012)은 관계적 공격성과 반응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 외현적 공격성과 반응적 공격성, 외현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 홍미라(2012)는 언어적 공격성, 대물 공격성, 대인

공격성, 황대현(2013)은 관계적 공격성, 외현적 공격성, 황희정(2013)은 분노, 적의성, 언어적 공격성, 신체적 공격성, 박석민(2014)은 언어적 공격성, 신체적 공격성, 강정남(2017)은 분노감, 언어적 공격성·의심, 적의성, 신체적 공격성, 김지윤(2017)은 부정성, 적의성, 흥분성, 언어적 공격성, 수동적 공격성, 신체적 공격성 등을 공격성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상과 같은 공격성의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표 2-5>와 같다.

<표 2-5> 공격성의 유형

연구자	공격성의 유형
Frodi, Macaulay & Thome(1977)	간접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직접적 공격성, 신체적 공격성
Mussen, Conger & Kagan(1979)	행동적 공격성, 내재적 공격성
Feshbach (1983)	비합법적 공격성과 합법적 공격성, 도구적 공격성과 적대적 공격성
강지훈(2004)	관계적, 주도적, 반응적 공격성
박지영(2010)	간접적 공격성, 부정성, 언어적 공격성, 신체적 공격성
성환재(2012)	우회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신체적 공격성
정재영(2012)	관계적 공격성과 반응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 외현적 공격성과 반응적 공격성, 외현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
홍미라(2012)	언어적 공격성, 대물 공격성, 대인 공격성
황대현(2013)	관계적 공격성, 외현적 공격성
황희정(2013)	분노, 적의성, 언어적 공격성, 신체적 공격성
박석민(2014)	언어적 공격성, 신체적 공격성,
강정남(2017)	분노감, 언어적 공격성·의심, 적의성, 신체적 공격성

김지윤(2017)	부정성, 적의성, 흥분성, 언어적 공격성, 수동적 공격성, 신체적 공격성
-----------	--

제 5 절 선행연구

1. 부모의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초등학생들이 인식하는 부모의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박윤정(2009)의 연구결과,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모든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어머니의 문화접변태도를 통한 양육방식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경로탐색에 대한 신정희(2010)의 연구결과, 어머니의 문화접변태도가 통합적일수록 제재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약하게 보였고,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수준은 높았다.

빈곤아동의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한 박순주(2011)의 연구결과, 긍정적 부모양육방식은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관계가 나타났고, 청소년이 느끼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서석남 외(2012)의 연구결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오미섭(2013)의 연구결과, 긍정적인 양육방식인 부모감독과 부모애정은 물론이고 부정적인 양육방식의 하위요인인 비밀관성, 과잉간섭은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방식과 자녀의 학교생활적응력 간의 관계에 대한 김영봉(2014)의 연구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방식과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고등학생이 인식한 부모양육태도,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김지현(2014)의 연구결과, 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간접적인 영향관계가 나타났으며, 자녀가 인식하는 부모

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민미희(2015)의 연구결과, 남·여 모두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방식과 자녀와의 의사소통 그리고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정택용(2016)의 연구결과,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변인 중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의 수준은 애정, 자율, 성취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가 인식한 부모의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김민지(2016)의 연구결과, 부모의 양육방식은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나타났다. 민주적인 양육방식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박미경·오현주(2016)의 연구결과, 부모의 민주적 양육방식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나타났으며,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양육방식과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 대한 황진현(2016)의 연구결과, 부모의 양육방식은 학교생활적응과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나타났다.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 대한 권윤정(2017)의 연구결과,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해서 좋게 인식할수록 청소년은 학교생활적응을 잘하고 있어서 부모의 양육방식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나타났으며, 자녀가 인식한 부모의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 대한 김영숙(2017)의 연구결과, 애정적 양육방식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나타났지만 거부적 양육방식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관계가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부모의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는 <표 2-6>과 같다.

<표 2-6> 부모의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결과
박윤정 (2009)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모든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나타났음.

신정희 (2010)	어머니의 문화접변태도가 통합적일수록 제재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약하게 보였고,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수준은 높았음.
박순주 (2011)	긍정적 부모양육방식은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관계가 나타났음.
서석남 외 (2012)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나타났음.
오미섭 (2013)	긍정적인 양육방식인 부모감독과 부모애정은 물론이고 부정적인 양육방식의 하위요인인 비밀관성, 과잉간섭은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나타났음.
김영봉 (2014)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방식과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관계를 확인하였음.
김지현 (2014)	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간접적인 영향관계가 나타났음.
민미희 (2015)	남·여 모두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났음.
정택용 (2016)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변인 중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의 수준은 애정, 자율, 성취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김민지 (2016)	부모의 양육방식은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나타났음.
박미경· 오현주 (2016)	부모의 민주적 양육방식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나타났음.
황진현 (2016)	부모의 양육방식은 학교적응과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나타났음.
권윤정 (2017)	부모의 양육방식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나타났음.
김영숙 (2017)	애정적 양육방식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나타났지만 거부적 양육방식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관계가 나타났음.

2. 부모의 양육방식과 우울, 우울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1) 부모의 양육방식과 우울

부모의 양육방식과 자녀의 우울의 관계에 대한 이소미(2002)의 연구결과, 부모의 돌봄과 과보호는 우울과 영향관계가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방식과 우울감 간의 관계에서 정은선(2008)은 부모의 양육방식의 구성요소로서 부모 돌봄과 과보호와 우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모 돌봄은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부모 과보호는 우울감과는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의 양육방식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김미진(2009)은 부모의 양육방식의 구성요소로서 부모의 다정성과 독립성과 우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모의 양육방식에서 다정성과 독립성이 낮을수록 우울에 더 큰 영향관계가 나타났고, 정문자·이종일(2010)은 수용적 부모의 양육방식과 우울에 대해서 성별 조절효과를 통한 분석결과, 부모의 수용을 높게 인식할수록 우울증상이 낮게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방식과 청소년 우울 간의 관계를 분석한 류희정(2009)의 연구결과,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양육방식이 부정적일수록 우울의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우울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한 제미영(2014)의 연구결과, 청소년 우울의 보호요인은 사회적 지지, 애착의 형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부모양육방식이며, 위험요인은 인터넷 중독, 불안, 부정적 자동사고, 부모갈등, 가정폭력, 스트레스, 우울정서 등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방식 중 애정적 부모의 양육방식이 청소년 우울의 보호요인으로 나타났고, 자녀가 인식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우울 간의 관계를 분석한 조항은(2014)의 연구결과, 자녀들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자율적으로 지지한다고 인식할수록, 어머니가 시간을 투자하여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갖을수록 우울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양육방식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이다경(2015)은 부모의 양육방식의 구성요소로서 거부적 양육방식, 과보호적 양육방식, 애정적 양육방식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거부적 양육방식이 높을

수록 자아탄력성이 낮아지며, 우울과 공격성은 높아졌고 우울이 높을수록 공격성은 높아졌다. 과보호적 양육방식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낮아지며, 우울과 공격성은 높아졌으며, 애정적 양육방식과 자아탄력성은 관계가 나타났으나, 우울과 공격성과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양육방식 불일치와 청소년의 스마트 폰 중독간의 관계를 분석한 최진(2016)의 연구결과, 부모의 양육방식 중 부모 모두 긍정적 태도, 어머니만 부정적 태도, 부모 모두 부정적 태도에서 부모양육방식 하위요인 중 관심이 우울에 정(+)-적인 영향관계가 나타났고,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양육방식과 청소년의 학교적응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황진현(2016)의 연구결과, 부모의 양육방식인 외로움, 합리적 설명, 과잉기대, 애정, 과잉간섭, 감독, 일관성은 우울의 구성요소인 불행, 기운, 자괴감, 걱정, 흥미, 희망, 울음, 자살충동과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청소년이 인식한 부와 모의 양육방식과 우울간의 관계를 분석한 구혜정(2017)의 연구결과, 청소년이 인식한 부와 모의 양육방식이 부정적일수록 우울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양육방식과 청소년 우울간의 관계를 분석한 임금옥(2017)의 연구결과, 양육방식과 비밀관성, 청소년의 우울, 과잉간섭, 과잉기대와는 관계가 나타났다. 부모양육방식과 중학생의 우울간의 관계를 분석한 한진숙(2017)의 연구결과, 부모양육태도는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도출되어 부모양육방식이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일수록 중학생의 우울수준을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방식과 청소년의 우울간의 관계를 분석한 백은라(2018)의 연구결과, 부모의 양육방식은 청소년의 우울과 직접적인 관계가 나타났으며, 부모의 양육방식과 아동의 우울간의 관계를 분석한 이주운(2018)의 연구결과, 부모의 양육방식과 아동의 우울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양육방식이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우울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부모의 양육방식과 우울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표 2-7>과 같다.

<표 2-7> 부모의 양육방식과 우울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 결과
이소미 (2002)	부모의 돌봄과 과보호는 우울과 영향관계가 나타났음.
정은선 (2008)	부모 돌봄은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부모 과보호는 우울감과는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음.
김미진 (2009)	부모의 양육방식에서 다정성과 독립성이 낮을수록 우울에 더 큰 영향관계가 나타났음.
정문자· 이종일 (2010)	부모의 수용을 높게 인식할수록 우울증상이 낮게 나타났음.
류희정 (2009)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양육방식이 부정적일수록 우울의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제미영 (2014)	부모양육방식 중 애정적 부모양육방식이 청소년 우울의 보호요인으로 나타났음.
조향은 (2014)	자녀들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자율적으로 지지한다고 인식할수록, 어머니가 시간을 투자하여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갖을수록 우울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다경 (2015)	거부적 양육방식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낮아지며, 우울과 공격성은 높아졌고 우울이 높을수록 공격성은 높아졌다. 과보호적 양육방식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낮아지며, 우울과 공격성은 높아졌으며, 애정적 양육방식과 자아탄력성은 관계가 나타났으나, 우울과 공격성과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음.
최진 (2016)	부모의 양육방식 중 부모 모두 긍정적 태도, 어머니만 부정적 태도, 부모 모두 부정적 태도에서 부모양육방식 하위요인 중 관심이 우울에 정(+)적인 영향관계가 나타났음.
황진현 (2016)	부모의 양육방식인 외로움, 합리적 설명, 과잉기대, 애정, 과잉간섭, 감독, 일관성은 우울의 구성요소인 불행, 기운, 자괴감, 걱정, 흥미, 희망, 울음, 자살충동과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음.

구혜정 (2017)	청소년이 인식한 부와 모의 양육방식이 부정적일수록 우울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옥 (2017)	양육방식과 비일관성, 청소년의 우울, 과잉간섭, 과잉기대와는 관계가 나타났다.
한진숙 (2017)	부모양육방식이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일수록 중학생의 우울의 수준을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은라 (2018)	부모의 양육방식은 청소년의 우울과 직접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이주윤 (2018)	부모의 양육방식과 아동의 우울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양육방식이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우울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우울과 학교생활적응

여중생의 우울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를 분석한 김태현·김석우(2012)의 연구결과, 우울은 학교생활적응의 구성요소인 학교공부가 가장 낮고 다음으로 학교생활 그리고 교사와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부(-)적 관계가 나타났지만, 학교친구와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우울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를 분석한 정수정(2012)의 연구결과, 우울은 학교생활적응과는 관계가 나타났지만,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우울의 수준이 낮게 나타날수록 학교생활적응의 수준은 높게 나타났고, 청소년의 우울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를 분석한 지선화(2012)의 연구결과, 우울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적응에 곤란함이 나타났고 우울적인 성향은 청소년과 부모간의 의사소통과 비교했을 때 학교적응과 더 많은 관계가 나타났다. 청소년의 우울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를 분석한 우수경·김기예(2013)의 연구결과, 청소년이 인식한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의 경우 우울과 학교생활적응 간에는 부(-)적인 관계가 나타났는데 우울한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 수준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군인가정 자녀의 우울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를 분석한 주석진·조성심·김근아(2013)의 연구결과, 우울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과 부(-)적인 관계가 도출되었다.

아동의 우울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를 분석한 이미지(2014)의 연구결과, 아동의 우울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인 일반적응, 환경적응 및 사회적 적응, 학업적 적응에 부(-)적 효과가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우울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를 분석한 안윤정·현진희(2015)의 연구결과, 청소년이 겪는 우울의 수준은 학교생활적응과 의미 있는 차이가 있으며, 또한 우울은 학교생활적응과 관계가 나타나서 우울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학교생활적응의 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우울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를 분석한 한혜정(2016)의 연구결과, 우울은 학교생활적응인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학교규칙의 준수, 학습활동과 부(-)적 관계가 나타났고,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와 우울의 매개역할을 분석한 황진현(2016)의 연구결과, 우울의 구성요소인 어려움, 울음, 자괴감, 희망, 걱정, 외로움, 흥미, 불행, 자살충동, 기운은 학교생활의 적응과 부(-)적 관계가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우울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를 분석한 유지애·김육진(2018)의 연구결과, 우울은 학교생활적응의 구성요소인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학교의 규칙, 학습활동과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의 우울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를 분석한 유지혜·유혜승(2018)의 연구결과, 청소년들이 겪는 우울감은 학교생활 적응과 직접관계는 없었지만 이들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변수와 공격성의 변수가 매개역할이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부모의 우울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표 2-9>와 같다.

<표 2-8>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결과
김태현· 김석우 (2012)	우울은 학교생활적응의 구성요소인 학교공부가 가장 낮고 다음으로 학교생활 그리고 교사와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부(-)적 관계가 나타났지만, 학교친구와는 관계가 나타났음.
정수정 (2012)	우울은 학교생활적응과는 관계가 나타났지만,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우울의 수준이 낮게 나타날수록 학교생활적응의 수준은 높게 나타났음.
지선화 (2012)	우울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적응에 곤란함이 나타났고 우울적인 성향은 청소년과 부모 간의 의사소통과 비교했을 때 학교적응과 더 많은 관계가 나타났음.
우수경· 김기에 (2013)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의 경우 우울과 학교생활적응 간에는 부(-)적인 관계가 나타났는데 우울한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 수준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주석진 외 (2013)	우울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과 부(-)적인 관계가 도출되었음.
이미지 (2014)	우울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인 일반적응, 환경적응 및 사회적 적응, 학업적 적응에 부(-)적 효과가 나타났음.
안윤정· 현진희 (2015)	우울의 수준은 학교생활적응과 의미 있는 차이가 있으며, 또한 우울은 학교생활적응과 관계가 나타나서 우울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학교생활적응의 수준은 높게 나타났음.
한혜정 (2016)	우울은 학교생활적응인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학교규칙의 준수, 학습활동과 부(-)적 관계가 나타났음.
황진현 (2016)	우울의 구성요소인 어려움, 울음, 자괴감, 희망, 걱정, 외로움, 흥미, 불행, 자살충동, 기운은 학교생활의 적응과 부(-)적 관계가 나타났음.

유지애· 김육진 (2018)	우울은 학교생활적응의 구성요소인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학교의 규칙, 학습활동과 부(-)적 관계가 나타났음.
유지혜· 유혜승 (2018)	우울감은 학교생활 적응과 직접관계는 없었지만 이들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변수와 공격성의 변수가 매개역할이 나타났음.

3. 부모의 양육방식과 공격성,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1) 부모의 양육방식과 공격성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언어발달과 공격성간의 관계를 분석한 유원길(2009)의 연구결과,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방식은 유아의 공격성과 영향관계가 나타났고, 부모의 양육방식과 초등학생의 공격성간의 관계를 분석한 박지영(2010)의 연구결과, 공격성의 수준은 부모가 자율적인 양육방식과 애정적인 양육방식으로 양육할수록 낮아지고, 통제적인 양육방식과 적대적인 양육방식으로 양육할수록 공격성의 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방식과 폭력청소년의 공격성간의 관계를 분석한 성환재(2012)의 연구결과, 폭력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부모양육방식과 자아상태, 공격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폭력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부모의 양육방식 결과 일반청소년에게는 민주적 양육방식이, 폭력청소년에게는 적대적 양육방식이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방식과 유아의 공격성간의 관계를 분석한 홍미라(2012)의 연구결과, 유아공격성과 언어공격성 그리고 대인공격성은 자율적 양육방식과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유아공격성 그리고 대인공격성은 통제적 양육방식과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중학생이 인식한 부모의 양육방식과 공격성간의 관계를 분석한 황희정(2013)의 연구결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공격성은 부(-)적 관계가, 부정적 양육방식과는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아동이 인식한 부모의 양육방식과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를 분석한 정재영(2012)의 연구결과, 부모의 양육방식과 남자아이는 공격성과 여자아이는 부모의 비합리적 양육방식과 합리적 양육방식 적대적 양육방식과 애정적 양육방식에서, 아버지의 자율적인 통제양육방식은 주도적 공격성과 어머니의 자율적인 통제 양육방식은 공격성의 요인들과 관계가 나타났고, 초등학생이 인식한 부모의 양육방식과 공격성간의 관계를 분석한 황대현(2013)의 연구결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인 애정적인 양육방식과 온정적인 양육방식은 공격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인 적대적인 양육방식과 공격적인 양육방식, 무관심적인 양육방식과 무시적인 양육방식과 관계가 나타났다.

중학생이 인식한 부모양육방식과 공격성간의 관계를 분석한 박석민(2014)의 연구결과, 중학생이 인식한 부모양육방식의 구성요소 중모의 통제적 양육방식과 부의 수용적 양육방식이 공격성과 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모의 수용적 양육방식과 자율적 양육방식, 부의 통제적 양육방식과 자율적 양육방식은 공격성과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양육방식과 공격성간의 관계에서 이다경(2015)은 부모의 양육방식의 구성요소로서 거부적 양육방식, 과보호적 양육방식, 애정적 양육방식과 공격성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아탄력성의 수준은 거부적 양육방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낮아지며, 공격성의 수준과 우울의 수준이 높아졌고 우울의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성의 수준도 높아졌다. 우울과 공격성은 높아졌으며, 자아탄력성은 애정적 양육방식이 높을수록 높았으나, 우울과 공격성과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중학생이 인식한 부모의 양육방식간의 관계를 분석한 강정남(2017)의 연구결과, 부모의 양육방식은 분노감, 언어적 공격성, 적의성, 신체적 공격성과 관계가 나타났고, 아동이 인식한 부모의 양육방식과 공격성간의 관계를 분석한 김지윤(2017)의 연구결과, 부모의 양육방식의 구성요소 중 자율과 공격성의 구성요소와 관계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양육방식과 청소년 공격성간의 관계를 분석한 임금옥(2017)의 연

구결과, 양육방식과 비일관성, 청소년의 우울, 과잉간섭, 과잉기대와는 관계가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부모의 양육방식과 공격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표 2-8>과 같다.

<표 2-9> 부모의 양육방식과 공격성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결과
유원길 (2009)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방식은 유아의 공격성과 영향관계가 나타났음.
박지영 (2010)	부모가 자율적인 양육방식과 애정적인 양육방식으로 양육할수록 낮아지고, 통제적인 양육방식과 적대적인 양육방식으로 양육할수록 공격성의 수준은 높게 나타났음.
성환재 (2012)	폭력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부모양육방식 결과 일반청소년에게는 민주적 양육방식이, 폭력청소년에게는 적대적 양육방식이 높게 나타났다.
홍미라 (2012)	유아공격성과 언어공격성 그리고 대인공격성은 자율적 양육방식과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유아공격성 그리고 대인공격성은 통제적 양육방식과 상관관계가 나타났음.
황희정 (2013)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공격성은 부(-)적 관계가, 부정적 양육방식과는 정(+)적 관계가 나타났음.
정재영 (2012)	남자아이는 공격성과 여자아이는 부모의 비합리적 양육방식과 합리적 양육방식 적대적 양육방식과 애정적 양육방식에서, 아버지의 자율적인 통제양육방식은 주도적 공격성과 어머니의 자율적인 통제 양육방식은 공격성의 요인들과 관계가 나타났음.
황대현 (2013)	애정적인 양육방식과 온정적인 양육방식은 공격성과 관계가 나타났으며, 부정적 양육방식인 적대적인 양육방식과 공격적인 양육방식, 무관심적인 양육방식과 무시적인 양육방식과 관계가 나타났음.
박석민	모의 통제적 양육방식과 부의 수용적 양육방식이 공격성과 관계

(2014)	가 나타났으나 모의 수용적 양육방식과 자율적 양육방식, 부의 통제적 양육방식과 자율적 양육방식은 공격성과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음.
이다경 (2015)	자아탄력성의 수준은 거부적 양육방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낮아지며, 공격성의 수준과 우울의 수준이 높아졌고 우울의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성의 수준도 높아졌다. 우울과 공격성은 높아졌으며, 자아탄력성은 애정적 양육방식이 높을수록 높았으나, 우울과 공격성과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음.
강정남 (2017)	부모양육방식은 분노감, 언어적 공격성, 적의성, 신체적 공격성과 관계가 나타났음.
김지윤 (2017)	부모 양육방식의 구성요소 중 자율과 공격성의 구성요소와 관계가 나타났음.
임금옥 (2017)	양육방식과 비일관성, 청소년의 우울, 과잉간섭, 과잉기대와는 관계가 나타났음.

2)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

아동이 인식한 부모의 언어적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를 분석한 박정연(2001)의 연구결과, 부모의 언어적 공격성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의 구성요소인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학교의 규칙, 학습활동의 요소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의 언어적 공격성이 학교수업에 가장 높은 수준의 부정적인 관계가 나타났고, 아동의 남학생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강지훈(2004)의 연구결과, 남학생의 경우 반응적인 공격성은 그들의 학교생활적응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은 학교생활적응과 부(-)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그룹 홈 아동의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를 분석한 이은숙(2006)의

연구결과, 일반아동의 경우는 공격성과 학교적응 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룹 홈 아동의 공격성은 학교적응과 부(-)적인 관계가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이 인식하는 부모의 애착이 그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공격성의 매개 역할에 대한 유병선(2008)의 연구결과, 공격성은 애착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결손가정 아동의 공격성과 그들의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 대한 이영진(2008)의 연구결과, 공격성은 결손가정 아동이 높았고, 학교생활적응은 정상가정 아동이 높았으나 전체적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흥분성은 결손가정 아동들이 정상가정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고, 학교생활적응의 교우관계와 학교생활은 정상가정 아동들이 높게 나타났고, 중학생의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를 분석한 신주혜(2009)의 연구결과, 공격성은 학교적응의 구성요소인 정의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 그리고 학업 적응과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

청소년의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를 분석한 박미향(2014)의 연구결과, 공격성은 학교생활적응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인 관계가 나타났고, 가정 내 학대경험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성효정(2014)의 연구결과, 공격성은 아동학대와 학교생활적응의 구성요소인 선생님과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학교의 규칙준수, 학습활동의 사이에서 조절역할이 나타났다. 신체활동 참여 청소년의 자기 통제력과 그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공격성의 매개역할에 대한 최재복(2015)의 연구결과, 신체활동 참여 청소년의 공격성은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과 자기 통제력과 관계에서 매개역할이 나타났고, 스포츠클럽활동 청소년의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를 분석한 박광원·강현욱(2016)의 연구결과, 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의 공격성은 학교생활의 적응과 관계가 나타났다.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또래애착이 그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공격성의 매개역할에 대한 박소윤(2017)의 연구결과, 학교생활의 적응과 친구에 대한 애착 그리고 자아정체감과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역할이 나타났으며, 아동 및 청소년의 피학대 경험과 그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공격성의 매개역할에 대한

차윤님(2018)의 연구결과, 아동과 청소년의 피학대 경험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역할이 나타났다. 청소년의 우울과 그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공격성의 매개역할에 대한 유지혜·유혜승(2018)의 연구결과, 청소년의 우울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역할이 나타났다.

지금까지 자녀의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표 2-10>과 같다.

<표 2-10>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결과
박정연 (2001)	부모의 언어적 공격성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의 구성요소인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학교의 규칙, 학습활동의 요소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의 언어적 공격성이 학교수업에 가장 높은 수준의 부정적인 관계가 나타났음.
강지훈 (2004)	남학생의 경우 반응적인 공격성은 그들의 학교생활적응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은 학교생활적응과 부(-)적인 관계가 나타났음.
이은숙 (2006)	일반아동의 경우는 공격성과 학교적응 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룹홈 아동의 공격성은 학교적응과 부(-)적인 관계가 나타났음.
유병선 (2008)	공격성은 애착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음.
이영진 (2008)	공격성은 결손가정 아동이 높았고, 학교생활적응은 정상가정아동이 높았으나 전체적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흥분성은 결손가정 아동들이 정상가정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고, 학교생활적응의 교우관계와 학교생활은 정상가정 아동들이 높게 나타났음.
신주혜 (2009)	공격성은 학교적응의 구성요소인 정의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 그리고 학업적 적응과 부(-)적 관계가 나타났음.

박미향 (2014)	공격성은 학교생활적응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인 관계가 나타났음.
성효정 (2014)	공격성은 아동학대와 학교생활적응의 구성요소인 선생님과 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학교의 규칙, 학습활동의 사이에서 조절역할이 나타났음.
최재복 (2015)	신체활동 참여 청소년의 공격성은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과 자기통제력과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이 나타났음.
박광원· 강현욱 (2016)	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의 공격성은 학교생활의 적응과 관계가 나타났음.
박소윤 (2017)	학교생활의 적응과 친구에 대한 애착 그리고 자아정체감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역할이 나타났음.
차윤님 (2018)	아동과 청소년의 피학대 경험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역할이 나타났음.
유지혜· 유혜승 (2018)	청소년의 우울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역할이 나타났음.

4. 선행연구의 평가

부모의 양육방식은 학교생활적응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선행연구들의 결과로 나타났다. 그 중 부모의 양육방식의 유형이 어떠한냐에 따라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방식은 선행연구를 포괄하는 차원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부정적 양육방식으로 구분하여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을 볼 때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우울에 그리고 우울은 학교

생활적응과의 관계가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방식과 우울 그리고 학교생활적응간의 구조적 관계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부모의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매개변수로 사용하여 우울이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공격성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보다는 학교생활적응과 다른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공격성을 부모의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간의 매개변수로 사용하여 공격성이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학교생활적응의 구성요소로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를 선정하여 연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구성요소는 선생님과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학교의 규칙준수, 학습활동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학교생활적응의 구성요소들은 학생들의 개인적인 차원과 학교환경적인 차원을 모두 포함한 구성요소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변수들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부모의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그리고 자녀의 우울 및 공격성의 변수들 간에는 서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들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모형의 설정

1. 잠재성장모형

잠재성장모형은 변수의 시간 경과에 따른 개인의 변화와 그 변화의 개인 간 발달의 차이를 반복 측정된 지표의 속성을 대표하고 설명하는 예측요인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종단 분석 방법으로 구조방정식모형에 속한다(Mason, 2001). 잠재성장모형은 세 번 이상 측정된 패널자료(panel data)나 종단자료(longitudinal data)의 변화에 대하여 분석할 수 있는 전문적인 방법으로 변화량을 집단이나 개인의 평균을 확인할 수 있다(김계수, 2009).

반면, 구조방정식모형에서 횡단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고자하는 요인 계수와 미지수가 각 요인(절편, 기울기)간의 경로계수라면 잠재성장모형에서는 각 요인의 평균과 요인간의 경로계수를 추정한다. 관찰시점에서 변수의 평균값을 절편이라고 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평균값의 변화정도를 기울기라고 한다. 구조방정식모형에서의 잠재성장모형은 회귀모델을 이용한 분석과는 다르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는 장점을 가진다(Hardy & Thiels, 2009). 즉, 잠재성장모형은 성장궤적 내에서 개인적 차이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성장궤적을 추정할 수 있다. 시간의 경과를 고려한 반복 측정된 잠재성장모형은 “무엇이 시간대별로 발생했는지” 그리고 “선형변화인지 비선형적 변화인지”, “변화된 시점이 어디인지”, “발달의 진행과정과 초기수준은 무엇이며”, “초기수준과 변화율은 무엇을 설명하는지”, “하나의 속성이 다른 변화율에 미칠 영향”등을 확인할 수 있다(김계수, 2009; Curran, 2000; 홍세희, 2012).

개인 내 모형(within-subject model)을 1수준 모형이라고 하며,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인의 변화를 모델링 한 것으로, 개인이 변화는 시간에 비례하는 변화가 오차와 합해진 값을 선형모형에서 의미한다. 개인 간 모형 (between-subject model)으로 구성된 잠재성장모형은, 개인간 모형은 2수준모형이라고도 하며, 개인 간 변화를 모델링한 것으로 변화에 대한 개인차를 나타낸다. 변화를 모델링한 개인 내와 개인 간의 잠재변인은 초기의 측정값이 차후의 값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서로 상관이 있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문수백, 2009). 해석에 있어 예를 들어보면 정적인 상관이 있을 경우 두 잠재변인 간에 초기의 수준이 높을수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으며, 부적상관의 경우는 역으로 해석하면 된다. 1수준 모형과 2수준 모형을 통해 전체 집단의 관심변인의 변화함을 참조하였다(Singer & Willett, 2003; 강상경, 2011). 잠재성장모형은 기본적으로 2단계를 거쳐 분석한다(Kine, 1998; 김계수, 2009).

첫째, 1단계는 비 조건적 모델(unconditional model)분석단계이다. 1단계인 비 조건적 모델분석 단계에서는 일정기간동안 종속변수 변화추이(발달곡선)을 측정 후 각 개인의 자료인 반복측정치(repeated measures)에 적합 시킨다. 연구자는 비 조건적 모델분석을 통해 평균발달곡선 초기치와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 평균 잠재성장모형에서 각 변수의 분산(variance)은 개인에 있어서의 특정 시간에 대한 오차를 나타낸다.

둘째, 2단계는 조건적 모델(conditional model)분석단계이다. 이 분석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얻어진 잠재요인(latent factor)으로서 초기치(intercept), 변화율(Slope)을 다양한 예측요인들에 연결시켜 초기치와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는 것으로 변수의 조절적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조건적 모델 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 개인표본($i=1$ 에서 N)의 측정된 시간($t=1$ 에서 T)에 따라 반복 측정된 변수 Y 에 대한 변화모델에 관한 잠재성장모형의 방정식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식은 모든 개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Y = \beta_{0i} + \beta_{1i}[t] +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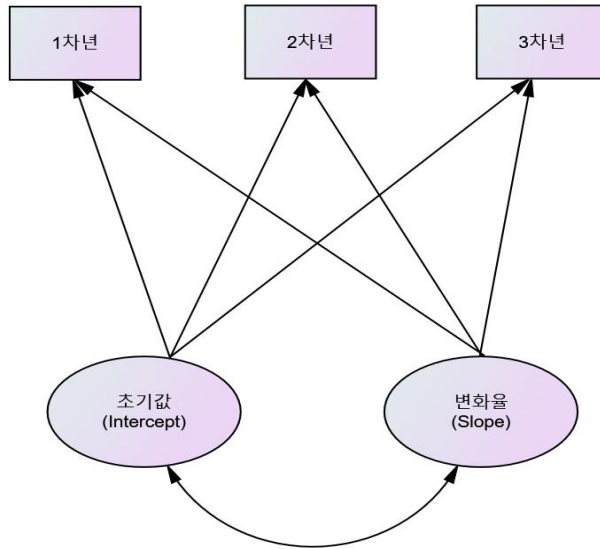
여기서 β_{0i} =개인 i 의 초기상태, β_{1i} =시간변화에 따른 개인의 변화율, $[t]$ =성장의 모양이나 시간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ε =개인 i 에 대한 시간 t 에서 관찰되지 않은 오차를 나타낸다.

잠재성장모형은 세 번 이상 측정된 종단 자료의 집단 평균 또는 개인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다. 즉 기본계수를 특정 값으로 놓고 변화에 대한 대립가설을 검증할 수 있다. 위의 수식에서 변화율의 모든 요인계수를 0으로 놓고 검증하는 것을 무변화 모델이라고 한다. 자료 상황에 따라 연구자는 2차 함수에 의한 비선형 잠재 성장모형(Non Linear Latent Growth Modeling)을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Y = \beta_{0i} + \beta_{1i}[t] + \beta_{2i}[t^2] + \varepsilon$$

3회 이상의 측정된 양적 변수인 등간척도와 비율척도가 잠재 성장모형 분석을 위해서는 있어야 한다. 결측치는 측정기간 동안 동일한 측정단위를 가져야 한다. 또한 측정시간대를 가져야 한다. 즉, 실험자의 측정은 동일한 시간과 간격을 갖고 시행되어야 한다(김계수, 2009).

본 연구의 연구가설 1~연구가설 5와 관련하여 부모의 양육방식, 학교생활 적응, 우울, 공격성의 발달궤적을 추정하기 위해 (그림 3-1)과 같이 부모의 양육방식은 1차년, 학교생활적응과 우울, 공격성은 각각에 3차년을 반복 측정한 자료를 발달궤적의 기본모형을 설정하여 초기 값과 변화율을 도출하였다. 각각 요인의 변화양상에 개인차가 존재하는지와 초기 값과 변화율의 변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과 관계를 확인하였다.



(그림 3-1) 잠재 성장모형 선형변화모형

2. 다변량 잠재성장 연구모형

횡단연구는 종단연구에 비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의 인과적 해석이 어려운 단점이 있지만, 비용과 시간의 부담이 적고 관찰결과를 즉시 확인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비해 종단연구는 3회 이상 반복 측정된 시간에 따른 연구변수의 변화추세를 규명하는데 효과적이다.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의 틀 내에서 만들어진 잠재성장모형은 평균치에 기초한 전통적인 분석방법의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고, 반복 측정된 변수들의 초기상태와 변화된 둘 이상의 잠재요인의 설명이 가능하고, 그리고 연구자가 관심 갖는 어떤 변수의 변화경향에 유용하게 잘 사용될 수 있다(이가봉 외, 2001). 잠재성장모형은 시간경과에 따른 종단데이터분석을 통해서 전반적인 관찰변수의 변화추이를 포착하여 선형변화 및 이차곡선선형 변화를 볼 수 있다. 잠재성장모형은 1차식(선형)을 비롯한 다항식(곡선)모형 추정과 전통적인방법에

서 요구되는 비현실적인 가정 ‘변화의 개인차가 없다’와 ‘측정오차는 0이다’와 같은 것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자아존중감, 건강문제, 경제변화 추이, 가족과 또래역학 관계, 운동, 우울증, 심리치료분야 등의 종단적인자료 분석에 폭넓게 적용이 가능한 방법이다(Suhr, 2000). 잠재성장모형이 변화를 보기위한 종단적인자료를 분석하는데 있어 유용한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 또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다 변량 정규분포여야 하고, 측정변인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개인의 변화가 체계적인 관련성을 가져야하며, 반복측정치들은 결측치가 없고, 측정은 동일한 시점에서 되어야 한다(이가봉 외,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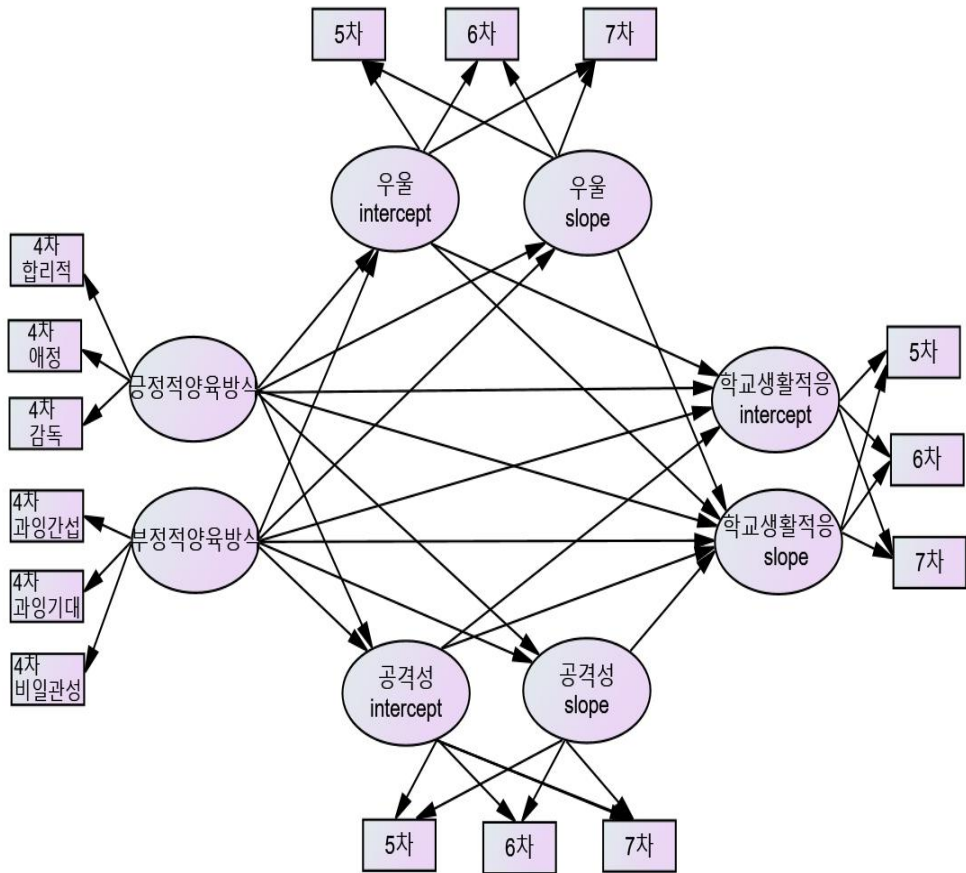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주목할 것은 선행연구에서는 횡단적인 연구로 변수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공격성이 종단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매개하는지 발달궤적을 살펴봄으로써 그 동안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차별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진행한 종단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의 사전예방 및 사후대처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초자료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책연구원이 조사 발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데이터 중 초4 패널데이터로 독립변수인 부모의 양육방식을 4차년도 데이터에서 긍정·부정적인 양육방식으로 나누었고,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과 매개변수인 우울, 공격성은 5,6,7차로 잠재성장모형으로 종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면 개인변화의 유의미성과, 개인차의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과 한 변수와 다른 변수관계의 변화사이를 파악할 수 있다(Mason, 2001). 변수가 다수인 경우 다 변량 잠재성장모형은 각 변수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을 개발하고 관련성 있는 그 모형사이를 검증할 수 있다. 다 변량 잠재성장모형은 변수간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것 뿐 만 아니라 변수들의 변화사이의 관련성검증도 가능하다(MacCallum et al., 1997; 김주환 외, 2009).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경로를 보면, 독립변수의절편이 종속변수의 절편과 기울기에 그리고 독립과 종속변수의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김주환 외, 2009). 본 연구는 7차 시점으로 측정된 자료 중 3차 시점으로 측정

된 종단적 자료를 사용하여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인 양육 방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변화와 각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 변량 잠재 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부정적 양육방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궤적 및 변화궤적 간 관계를 검증하고, 또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부정적 양육방식이 우울과 공격성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는데 이러한 연구목적에 적합한 통계적 분석방법으로 잠재 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 LGM)을 사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개인 시간의 흐름을 추정하여 평균적 변화와 개인 간 차이를 설명하는 변화의 예측요인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분석방법이다. 이 분석방법을 이용하면 개인차 변화의 유의미성 정도, 변화에서의 개인차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영향관계를 잠재변수 간 체계적으로 파악 할 수 있다 (Duncan et al., 1999; Hofer et al., 2002; Hussong et al., 2004; 홍세희 외, 2007; Hardy et al., 2009). 잠재성장모형은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부정적 양육방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변화궤적과 변화궤적 간 관계를 검증하고, 영향을 미치는 이들 관계의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찾는 적합한 목적의 분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2) 다변량 잠재성장 연구모형

제 2 절 연구가설

(그림 3-2)의 연구모형에 제시한 바와 같이,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를 세분하면, 본 연구의 가설들은 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설과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가설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가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학교생활적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추세를 보일 것이다.
- 가설 2. 청소년의 우울, 공격성, 학교생활적응은 개인차가 있을 것이다.
- 가설 3.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은 우울, 공격성 및 학교생활적응의 변화궤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1.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은 우울의 변화궤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2.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은 공격성의 변화궤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3.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은 학교생활적응의 변화궤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은 우울, 공격성, 학교생활적응의 변화궤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1.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은 우울의 변화궤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2.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은 공격성의 변화궤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3.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은 학교생활적응의 변화궤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5.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은 부모의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의 변화궤적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 가설 5-1. 청소년의 우울과 부모의 양육방식이 학교생활적응의 변화궤적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 가설 5-2. 청소년의 공격성은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의 변화궤적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1. 변수의 개요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데이터 자료 중 초4패널 4차~7차년도(중1~고1) 조사의 설문지에 포함되어있는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초4패널은 본 연구 목적과 연구대상이 일치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변수 설정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부모의 양육방식으로 긍정적 양육방식과 부정적 양육방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긍정적 양육방식 하위변인은 감독(3문항), 합리적 설명(3문항), 애정(4문항)이며, 부정적 양육방식 하위변인은 과잉기대(4문항), 과잉간섭(4문항), 비일관성(3문항)이다.

둘째, 종속변수는 학교생활적응으로 하위변인은 교사관계(5문항), 교우관계(5문항), 학교규칙(5문항), 학습활동(5문항)이다.

셋째, 매개변수는 우울과 공격성으로 우울의 하위변인은 10문항, 공격성의 하위변인은 6문항이다.

이와 같이 독립변수는 4차년도 변수자료, 종속변수와 매개변수는 5,6,7차년도 변수자료를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독립변수인 부모의 양육방식을 4차년도만을 분석한 것은 부모의 양육방식이 초기에 고착되면 장기적으로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4차년도 자료만을 분석하였다.

2. 부모의 양육방식

부모의 양육방식(mobile phone dependence)은 본 연구의 독립변수이다. KCYPS조사 4차년도 조사에서 사용된 척도이며, 각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로서 4점~1점까지 매우 그렇다~전혀 그렇지 않다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척도문항의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방식이 긍정적 양육방식이나 부정적 양

육방식의 정도가 더 높다는 의미를 갖는다.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양육방식 중 긍정적 양육방식(합리적 설명, 애정, 감독)과 부정적 양육방식(과잉간섭, 과잉기대, 비밀관성)의 수준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척도문항은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

<합리적 설명 변인>

- ① 부모님은 결정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나서 따르게 하도록 하고 있다(X1.1).
- ② 만약에 내가 나쁜 행동을 하였을 경우 무조건 혼내기 보다는 나의 행동이 옳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X1.2).
- ③ 만약에 내가 부모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될 때 그것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X1.3).

<애정 변인>

- ① 내 의견을 부모님은 존중해 주시는 편이다(X2.1).
- ② 나에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가끔 해 주시는 편이다(X2.2).
- ③ 내가 힘들어 하는 경우 내게 용기를 주시는 편이다(X2.3).
- ④ 내게 가끔 칭찬을 해 주시는 편이다(X2.4).

<감독 변인>

- ① 내가 방과 후에는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편이다(X3.1).
- ② 내가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편이다(X3.2).
- ③ 내가 외출하는 경우에는 내가 언제 들어올지를 알고 주시는 편이다(X3.3).

2)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과잉간섭 변인>

- ① 다른 친구들도 해낼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불안해하시고 나에게서는 못하게 하시는 편이다(X4.1).
- ② 평소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겨야 한다는 걸 강조하시는 편이다(X4.2).
- ③ 조그마한 일들에 대해서도 간섭을 많이 하시는 편이다(X4.3).
- ④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못 하게 하시는 편이다(X4.4).

<과잉기대 변인>

- ① 부모님이 나에게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이 내 능력 이상이어서 부담스러움을 느낀(X5.1).
- ② 나에게 대해서 걱정을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X5.2).
- ③ 나와 관련된 어떠한 일들보다도 공부에 대해서는 더욱 열성적이다(X5.3).
- ④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른 친구들보다도 더욱 잘해야 한다고 하신다(X5.4).

<비일관성 변인>

- ① 내가 하는 같은 일들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혼내시고 어떤 경우에는 혼을 안내신다(X6.1).
- ② 부모님은 가끔 기분이 내키시는 대로 나를 대하시는 편이다(X6.2).
- ③ 손님이 오시거나 내가 외출했을 경우에, 평소보다 나에게 대한 부모님의 태도는 많이 다른 편이다(X6.3).

3. 우울

매개변수인 우울(depression)은 KCYPS조사 5~7차년도 조사에서 사용된 척도이다. 각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로써 4점~1점까지 매우 그렇다~전혀 그렇지 않다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척도문항의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조사대상자가 인식하는 우울의 정도가 더 심하다는 뜻이다. 청소년이 인식하는 우울수준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척도문항은 다음과 같다.

<우울 변인>

- ① 나는 모든 일이 힘들다고 생각한다(M1.1)
- ② 나의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M1.2).
- ③ 나는 모든 일에 별로 관심과 흥미가 없는 편이다(M1.3).
- ④ 나는 무척 외롭다(M1.4).
- ⑤ 무슨 일들이 잘못 되었을 경우 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 편이다(M1.5).
- ⑥ 나는 울기를 잘 한다(M1.6).
- ⑦ 가끔씩 죽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M1.7).
- ⑧ 나는 현재 걱정이 많은 편이다(M1.8).
- ⑨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가끔씩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M1.9).
- ⑩ 나는 기운이 많이 없는 편이다(M1.10).

4. 공격성

매개변수인 공격성(aggression)은 KCYPS조사 5~7차년도 조사에서 사용된 척도이다. 각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로써 4점~1점까지 매우 그렇다~전혀 그렇지 않다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척도문항의 합산점수의 수준이 높을수록 조사

대상자가 인식하는 공격성의 정도가 더 심하다는 뜻이다. 청소년이 인식하는 공격성의 수준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척도문항은 다음과 같다.

<공격성>

- ① 나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가끔 우는 경우가 있다(M2.1)
- ② 나는 하루 종일 가끔씩 화가 나는 경우가 있다(M2.2)
- ③ 나는 별 일도 아니 것 가지고 가끔 싸우곤 한다(M2.3)
- ④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게 하면 덤비거나 따지곤 한다(M2.4)
- ⑤ 나는 남이 하는 일을 가끔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M2.5)
- ⑥ 나는 작은 일에도 가끔 생트집을 잡을 경우가 있다(M2.6)

5.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은 본연구의 독립변수로서 학교생활 부적응의 반대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KCYPS조사 중 초4패널 5~7차년도 조사에서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학교의 규칙준수, 학습활동이라는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로서 4점~1점까지 매우 그렇다~전혀 그렇지 않다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이 반전되어 있는 문항들을 역 채점 하였으며 따라서 하위요인별로 합산점수가 많을수록 학교생활 부적응의 정도가 높다는 뜻을 갖는다(R은 역채점 문항임).

<교사관계>

- ① 나는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드린다(Y1.1).
- ②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한다(Y1.2).
- ③ 나는 선생님을 학교 밖에서 만나면 반갑다고 생각한다(Y1.3).

- ④ 나는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고 생각한다(Y1.4).
- ⑤ 나는 졸업한 이후에도 우리 담임선생님을 찾아뵙고 싶다(Y1.5).

<교우관계>

- ① 나는 우리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다(Y2.1).
- ② 나는 아이들과 싸웠을 경우에 먼저 사과하는 편이다(Y2.2).
- ③ 나는 친구가 준비물 등을 안 가져왔을 경우 같이 보거나 빌려 주기도 하곤 한다(Y2.3).
- ④ 나는 친구가 하는 일을 가끔 방해하기도 한다(R). (Y2.4).
- ⑤ 교실에서 놀이나 모둠활동을 하는 경우에 아이들은 나의 말을 잘 따라주는 편이다(Y2.5).

<학교 규칙>

- ① 나는 당번 등 학급에서 맡은 활동은 열심히 하는 편이다(Y3.1).
- ② 나는 복도와 계단을 다니는 경우 조용히 다니고 뛰지 않은 편이다(Y3.2).
- ③ 나는 학교 물건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중히 내 것처럼 쓴다(Y3.3).
- ④ 나는 급식실에서 밥먹을 때나 화장실에서 순서를 잘 지키는 편이다(Y3.4).
- ⑤ 나는 휴지를 버릴 일이 있으면 반드시 휴지통에 버리는 편이다(Y3.5).

<학습활동>

- ① 나는 학교 수업시간이 항상 재미가 있는 편이다(Y4.1).
- ② 나는 학교숙제는 반드시 빼먹지 않고 한다(Y4.2).
- ③ 나는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편이다(Y4.3).
- ④ 나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본다(Y4.4).
- ⑤ 나는 수업시간에 딴 짓을 많이 한다(R). (Y4.5).

제 4 장 실증분석

제1절 자료의 수집 및 점검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 자료는 전국 학생집단 대상으로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부정적 양육방식 4차년도 중1, 학교생활적응 5~7차년도 중2, 중3, 고1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모형검증을 위해 사용된 자료는 KCYPS(2010)의 초 4패널 4~7차년도 자료²⁾로서 2013년~2016년에 수집된 것이다. 패널조사에서는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sampling)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는 전국지역에 거주하는 중1~고1학년의 집단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조사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 사례 수 2,378부, 학교 수 95개 학교 중 5~7차년도 학교생활적응과 우울, 공격성 결측치 276부를 제외한 유효표본 2,102부 대표성을 확보한 전국단위 데이터를 분석 실시하였다. 4차년도 양육방식의 결측치 288부를 제외한 유효표본 2,090부로 종단분석을 실시하였다.

2. 표본의 특성

한국아동·청소년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초4패널자료 4

2)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는 2010년 1차 조사 2010년~2016년까지 7개년에 걸쳐 매년 추적조사 실시함. 초1 패널: 초1~중1, 표본 사례 수, 2,342, 표본 학교(학급)수 98, 초4 패널: 초4~고1, 표본 사례 수, 2,378. 표본 학교(학급)수 95, 중1 패널: 중1~대1, 표본 사례 수, 2,351, 표본 학교(학급)수 78, 표본학교추출: 16개 광역시·도와 도시규모(대도시/중소도시/군지역)를 교차하여 추출한 27개 집락별로 확률비례추출법(PPS)에 의거하여 조사대상 학교 선정.

차~7차 데이터 중 1차 시점인 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특성을 살펴보았다. 최종 연구대상은 2,102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서는 성별, 부모님 근로여부, 가족구성, 가구 연소득, 보호자특성(건강상태평가, 삶의 만족도), 본인건강상태, 거주지역, 성적 주관적 평가를 빈도와 비율 분석하였다.

성별에 따른 특성은 연구대상자 전체 2,092명 중 남성 1,100명(52.6%), 여성 992명(47.4%)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 부모님의 근로여부를 부친과 모친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부친의 근로여부는 응답자 1,972명 중 1,931명(97.9%)이 일을 하고 있고 40명(2.0%)이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친은 2,002명 중 1,298명(64.8%)이 일을 하고 있고, 704명(35.2%)이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가족구성은 2,102명중 부모(아버지+어머니+자녀)로 구성된 세대는 1,812명(86.2%)으로 나타났고, 한부모(조부·모+자녀+기타) 290명(13.8%)로 구성된 세대로 나타났다. 가구연간소득은 응답자 1,981명중 5,000만원~7,000만원미만이 597명(30.1%)로 가장 많았고, 4,000~5,000만원미만이 391명(19.7%), 3,000만원~4,000만원 미만이 364명(18.4%), 7,000만원이상 325명(16.4%), 3,000만원미만이 304명(15.3%)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자특성으로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건강상태평가는 2,102명중 건강한 편이다 1,559명(74.2%), 매우건강하다 414명(19.7%), 건강하지 못함이 129명(6.2%)순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2,092명 응답자 중 ①나는 사는 게 즐겁다. 그런 편이다 1,045명(50.0%), 매우 그렇다 876명(41.9%), 그렇지 않음 171명(8.2%)으로 나타났다. ②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그런 편이다 894명(42.7%), 그렇지 않는 편이다 687명(32.9%), 매우 그렇다 511명(24.4%)순으로 나타났다. ③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편이다 1,041명(49.8%), 매우 그렇다 819명(39.1%). 그렇지 않음 232명(11.1%)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건강상태는 2,092명의 응답자 중 건강한 편이다 1,304명(62.3%), 매우 건강하다 673명(32.2%), 건강하지 못 한 편이다 11명(5.5%)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전체 성적만족도는 2,090명중, 만족하는 편이다 939명(44.9%),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796명(37.8%), 매우 만족 한다 196명(9.4%),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65명(7.9%)로 나타났다.

<표 4-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4차 기준(n=2,102)

구분		내용	빈도 (명)	비율 (%)	비고
성별		남성	1,100	52.6	n=2,092
		여성	992	47.4	
부모 님 근로 여부	부친	일을 하고 있다	1,931	97.9	n=1,972 결측406
		일을 하고 있지 않다	40	2.0	
		해당사항 없음	1	0.1	
	모친	일을 하고 있다	1,298	64.8	n=2,002 결측376
		일을 하고 있지 않다	704	35.2	
	가족구성		부모(아버지+어머니) +자녀	1,812	86.2
한부모 (조부·모+자녀+기타)			290	13.8	
가구 연간소득		3,000만원 미만	304	15.3	n=1,981 결측397
		3,000~4,000만원 미만	364	18.4	
		4,000~5,000만원 미만	391	19.7	
		5,000~7,000만원 미만	597	30.1	
		7,000만원 이상	325	16.4	
보호 자 특 성	건강상태평가	매우건강하다	414	19.7	n=2,102 결측276
		건강한 편이다	1,559	74.2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115	5.5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14	0.7	
삶의 만족도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매우 그렇다	876	41.9	n=2,092 결측286
		그런 편이다	1,045	50.0	
		그렇지 않는 편이다	150	7.2	
		전혀 그렇지 않다	21	1.0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매우 그렇다	511	24.4	
		그런 편이다	894	42.7	
		그렇지 않는 편이다	589	28.2	
		전혀 그렇지 않다	98	4.7	
	나의 인생은 행복한 편이다.	매우 그렇다	819	39.1	
		그런 편이다	1,041	49.8	
		그렇지 않는 편이다	207	9.9	
		전혀 그렇지 않다	25	1.2	
본인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673	32.2	n=2,092 결측286	
	건강한 편이다	1,304	62.3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110	5.3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5	0.2		
전체 성적 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196	9.4	n=2,090 결측288	
	만족하는 편이다	939	44.9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796	37.8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65	7.9		

3. 자료의 정규성 점검

<표 4-2>에 제시된 정규성은 표준 왜도지수의 절대 값이 3.0보다 작고, 표준첨도지수의 절대 값이 10보다 작기 때문에 본 연구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는 정상적인 분포의 조건을 갖추었기에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각 시점별 주요변인의 정규성 분포는 <표 4-2>에 제시하였다.

<표 4-2> 주요 변수의 정규분포 검토 결과

구분		유효 사례수	결측 사례수	결측 비율 (%)	왜도	첨도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	합리적 설명 4차시	2,092	286	12.0	.316	.377
	애 정 4차시	2,092	296	12.0	.448	.443
	감 독 4차시	2,090	288	12.1	.601	.497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과잉간섭 4차시	2,092	286	12.0	-.220	-.202
	과잉기대 4차시	2,092	286	12.0	-.056	-.093
	비일관성 4차시	2,092	286	12.0	-.130	-.219
우울	우울 5차	2,070	308	13.0	-.466	-.130
	우울 6차	2,061	317	13.3	-.491	.259
	우울 7차	1,979	399	16.8	-.412	-.096
공격성	공격성 5차	2,070	308	13.0	-.148	-.244
	공격성 6차	2,061	317	16.8	-.158	-.089
	공격성 7차	1,979	399	13.0	-.192	-.552
학교 생활적응	교사관계 5차	2,068	310	13.0	.255	.149
	교사관계 6차	2,058	320	13.5	.210	.155
	교사관계 7차	1,965	413	17.4	.080	-.002
	교우관계 5차	2,068	310	13.0	-.260	-.013
	교우관계 6차	2,058	320	13.5	-.197	.231
	교우관계 7차	1,965	413	17.4	-.281	-.218
	학교규칙 5차	2,058	320	13.0	.161	.946
	학교규칙 6차	2,058	320	13.5	.052	.747
	학교규칙 7차	1,965	413	17.4	.083	.623
	학습활동 5차	2,068	310	13.0	.042	.473
	학습활동 6차	2,058	320	13.5	.079	.479
	학습활동 7차	1,965	413	17.4	.278	.780

제 2 절 변수 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학교생활적응의 5차 시점에서 6차 시점까지 긍정적·부정적 부모양육태도($p < .01$), 우울($p < .01$), 공격성($p < .01$)으로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우울과 공격성(5차~7차)이 부(-)의 관계로, 학교생활적응(5~7차)은 정(+)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우울과 공격성(5~7차)은 정(+)의 관계로, 학교생활적응(5~7차)은 부(-)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높을수록, 부정적 양육태도가 낮을수록, 우울이 낮을수록, 공격성이 낮을수록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중공선성을 의심하는 상관계수인 .8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3>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구분	긍정적 4차	부정적 4차	우울 5차	우울 6차	우울 7차	공격성 5차	공격성 6차	공격성 7차	학교생활적응 5차	학교생활적응 6차	학교생활적응 6차
긍정적 4차	1										
부정적 4차	-.108**	1									
우울 5차	-.269**	.096**	1								
우울 6차	-.256**	.101**	.549**	1							
우울 7차	-.235**	.046*	.469**	.535**	1						
공격성 5차	-.238**	.146**	.539**	.332**	.293**	1					
공격성 6차	-.206**	.114**	.359**	.547**	.323**	.477**	1				
공격성 7차	-.238**	.106**	.356**	.361**	.571**	.455**	.502**	1			
학교생활적응 5차	.362**	-.103*	-.378**	-.316**	-.286**	-.425**	-.307**	-.319**	1		
학교생활적응 6차	.325**	-.084**	-.305**	-.371**	-.268**	-.302**	-.380**	-.311**	.608**	1	
학교생활적응 7차	.311**	-.083**	-.248**	-.280**	-.390**	-.282**	-.316**	-.415**	.512**	.558**	1

** P<0.01(양측), * P<0.05(양측)

제 3 절 변화모형 설정과 발달계적 추정

1. 부모의 양육방식의 발달계적 분석

1) 부모의 양육방식의 측정 시점별 평균

본 연구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부정적 양육방식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탐색하였다. 먼저 각 시점에서 측정한 변인들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부모의 양육방식은 4차 시점의 긍정적 양육방식의 평균은 1.849, 표준편차는 .487, 부정적 양육방식의 평균은 2.580, 표준편차는 .579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방식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4-4>에 제시하였다.

<표 4-4> 부모의 양육방식의 평균 및 표준편차

구분	4차		
		평균(SE)	표준편차
부모의 양육방식	긍정적	1.849(.011)	.487
	부정적	2.580(.013)	.579

2) 부모의 양육방식의 잠재 성장모형 적합도

부모의 양육방식의 변화양상에 대한 유의성과 변화의 경향에 따른 최적모형을 도출하기 위하여 무 변화모형과 선형모형의 적합도와 모형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1모형은 무 변화모형으로 3년 간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부정적 양육방식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X^2=.000(df=0, p=.000)$, NFI=1.000, CFI=1.000, RMSEA=.291로 나타났고, 반면에 2모형의 적합도는 $X^2=.000(df=0, p=.000)$, NFI=1.000, CFI=1.000, RMSEA=.255로 나타났다. 따라서 변화율이 2가지인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무변화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방식은 4차만 사용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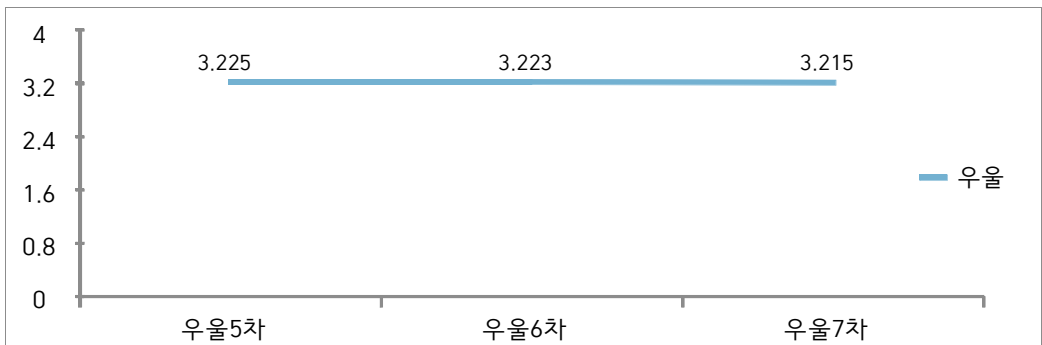
<표 4-5> 부모의 양육방식 요인의 잠재 성장모형 적합도

구분	X ²	df	P	NFI	IFI	CFI	RMSEA
긍정적 양육방식 4차	.000	0	.000	1.000	1.000	1.000	.291
부정적 양육방식 4차	.000	0	.000	1.000	1.000	1.000	.255

2. 우울의 발달궤적 분석

1) 우울의 측정 시점별 평균

청소년 우울의 발달궤적을 추정하기 전, 청소년의 우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각 시점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해보았다(<표 4-6> 참고). 청소년의 우울수준은 5차 시점(M=3.225)에서 6차 시점(M=3.223), 7차 시점(M=3.215)까지 약간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차 시점에서 6차 시점까지 청소년 우울의 전체 평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수준의 평균값 변화경향은(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우울 요인 측정시점별 평균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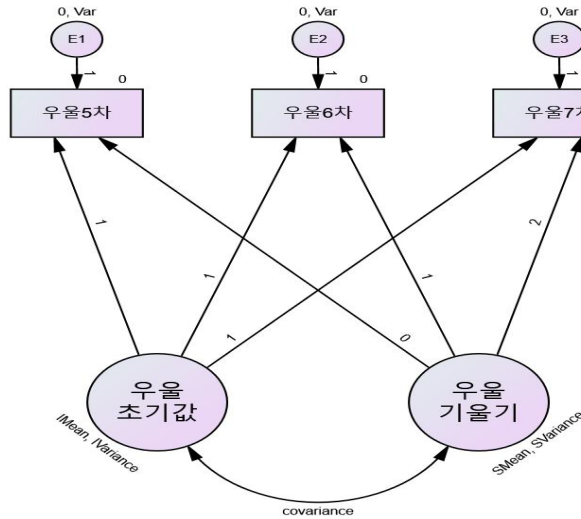
<표 4-6> 우울의 평균 및 표준편차

구분	5차		6차		7차	
	평균 (SE)	표준편차	평균 (SE)	표준편 차	평균 (SE)	표준편차
우울	3.225 (.013)	.575	3.223 (.012)	.550	3.215 (.012)	.550

2) 우울요인의 잠재 성장모형 및 발달궤적 추정

우울수준의 변화양상에 대해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증하고 변화경향에 대한 모형을 도출하기 위하여 무 변화모형과 선형모형의 적합도와 모형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였다(<표 4-7> 참고).

초기 값은 무변화 모형으로 3년간의 우울수준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고 가정하고,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초기 값은 $X^2=13.877(df=2, p=.001)$ 이며, NFI=.991, RFI=.972, IFI=.992, TLI=.976, CFI=.992, RMSEA=.050으로 나타났다. 변화율은 $X^2=.427(df=3, p=.935)$ 이며, NFI=1.000, RFI=.999, IFI=1.002, TLI=1.003, CFI=1.000, RMSEA=.00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가지 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비교평가 결과, 선형모형에 대한 적합도가 더욱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 변화 모형에 비해 선형모형이 자료를 더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2) 우울의 발달계적 적합도

<표 4-7> 우울의 잠재 성장모형 적합도

구분	X ²	df	P	NFI	RFI	IFI	TLI	CFI	RMSEA
무변화 모형	13.877	2	.001	.991	.972	.992	.976	.992	.050
선형 모형	.427	3	.935	1.000	.999	1.002	1.003	1.000	.000

최종모형으로 결정된 우울의 선형모형 발달계적을 추정하였다. <표4-8>에 제시된바와 같이 우울의 초기값의 평균은 3.228***($p < .001$), 분산은 .198***($p < .00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값 평균추정치 3.228를 기준으로 청소년 개인의 초기값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흩어진 정도에 대한 C.R이 19.324이며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우울의 초기 값의 정도에서 개인차가 유의하다는 것으로 최초 측정시점인

1차 시점(중학교 2학년)때 우울의 정도가 청소년 간에 차이가 매우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울요인의 변화율 평균은 $-.006$ 으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율에 분산은 $.018^{***}$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변화율 평균추정치 $-.006$ 을 기준으로 청소년 개인의 변화율 값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흩어진 정도에 대한 C.R값이 5.153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측정시점(중2)부터 마지막 시점(고1)까지 3년 동안 청소년의 우울의 변화정도가 개인 간에 차이가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치와 변화율 상관은 부(-)적 $-.024^{***}$ ($p<.05$)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초기 값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변화율은 느려지며, 초기 값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변화율은 빠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으로 우울모형의 적합도와 발달궤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무변화 모형과 선형모형 간 적합도를 비교하여 변화양상을 파악한 결과 3년 동안 청소년의 우울수준의 평균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수준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변화의 정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양한 개인차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청소년은 우울의 정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지만, 일부 청소년은 느린 속도로 변화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우울의 발달궤적 추정치

매개변수(parameter)	평균(SE)	C.R	분산(SE)	C.R
초기값(intercept)	$3.228(.012)^{***}$	266.396	$.198(.010)^{***}$	19.324
기울기(Slope)	$-.006(.007)$	-.957	$.018(.003)^{***}$	5.153
intercept-Slope 상관계수	$-.024(.005)^{***}$	-5.221		

*** : $p<0.001$, ** : $p<0.05$, * :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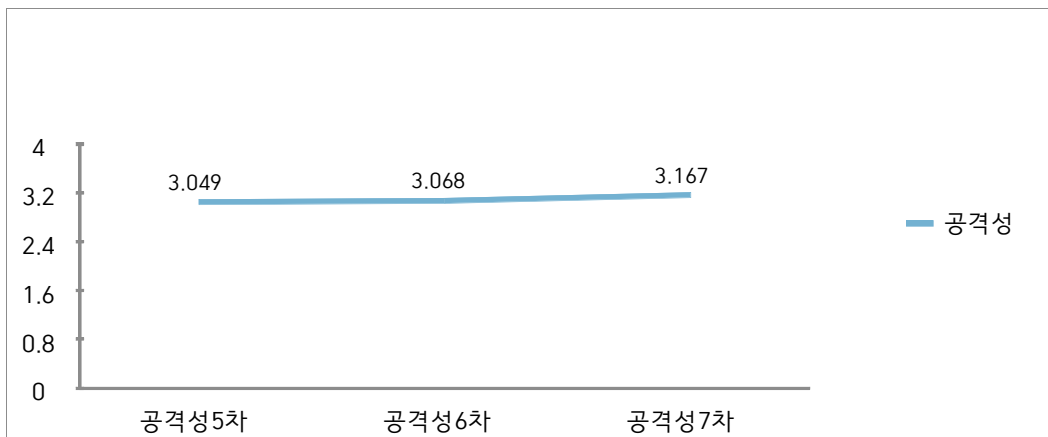
3. 공격성의 발달계적 분석

1) 공격성의 측정시점별 평균

청소년 공격성의 발달계적을 추정하기 앞서 청소년의 공격성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조사 시점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표 4-9>. 청소년의 공격성은 5차 시점(M=3.049), 6차 시점(M=3.068), 7차 시점(M=3.167)까지 전체 평균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에 대한 공격성의 평균값 변화경향을 그래프로 나타내면(그림 4-3)과 같다.

<표 4-9> 공격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구분	5차		6차		7차	
	평균(SE)	표준편차	평균(SE)	표준편차	평균(SE)	표준편차
공격성	3.049(.012)	.559	3.068(.012)	.543	3.167(.012)	.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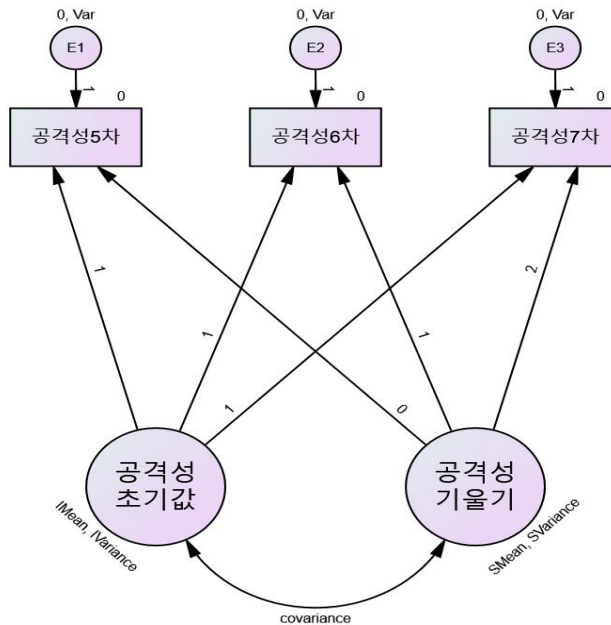


(그림 4-3) 공격성 요인 측정시점별 평균변화

2) 공격성의 잠재성장모형 및 발달궤적 추정

공격성 수준의 변화양상에 대해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증하고 변화경향에 대한 최적모형을 도출하기 위하여 무변화 모형과 선형모형의 적합도와 모형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였다<표 4-10>.

초기 값은 무변화 모형으로 3년간의 공격성 수준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고 가정하고서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초기 값은 기울기는 $X^2=19.771(df=3, p=.000)$, NFI=.984, RFI=.968, IFI=.986, TLI=.973, CFI=.986, RMSEA=.048로 나타났고, 반면에 선형모형의 경우에는 $X^2=3.225(df=2, p=.199)$ 이며, NFI=.997, RFI=.992, IFI=.999, TLI=.997, CFI=.999, RMSEA=.016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가지 모형을 비교한 결과, 선형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변화모형과 비교해 선형모형이 자료에 대한 설명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4) 공격성의 발달궤적 적합도

<표 4-10> 공격성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구분	X ²	df	P	NFI	RFI	IFI	TLI	CFI	RMSEA
무변화 모형	19.771	2	.000	.984	.968	.986	.973	.986	.048
선형 모형	3.225	3	.199	.997	.992	.999	.997	.999	.016

최종모형으로 결정된 공격성 수준의 선형모형의 발달궤적을 추정하였다. <표 4-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공격성 수준의 초기 값의 평균은 3.037***($p < .001$)로 회귀추정식의 상수항으로 인정이 가능하도록 의미 있게 나타났다. 이는 공격성수준 초기 값의 평균은 0이라는 영가설을 기각한다. 즉 공격성 초기 값의 평균은 0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공격성 초기 값의 분산인 .160***($p < .001$)은 초기 값 평균추정치 3.037***를 기준으로 청소년 개인의 초기 값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흩어진 정도에 대한 C.R값이 16.461이며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의 공격성의 수준에서 각 개인별로 의미 있는 개인차를 보이는 것이다. 각 개별 공격성수준 초기 값의 개인차가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최초 측정시점의 공격성 수준이 개인 간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공격성 변화율의 평균은 .059***($p < .001$)로 유의하게 나타나 변화율 평균이 0이라는 영가설을 기각하게 된다. 이는 1차 시점 증가할 때 마다 .059***만큼 공격성 수준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3년 동안 청소년의 공격성 수준은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 수준 변화율의 분산은 .008*($p < 0.05$)로 나타나 개인들 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격성 수준과 변화율 간의 상관계수는 -.012**($p < 0.01$)로 나타나 공격성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공격성의 증가가 더디게 이루어지는 반면에, 공격성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은 증가율의 변화가 더 빨리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1> 공격성의 발달궤적 추정치

매개변수(parameter)	평균(SE)	C.R	분산(SE)	C.R
초기 값(intercept)	3.037(.012) ^{***}	260.937	.160(.010) ^{***}	16.461
기울기(Slope)	.059(.006) ^{***}	9.081	.008(.004) [*]	2.343
intercept-Slope 상관계수	-.012(.005) ^{**}	-2.581		

*** : $p < 0.001$, ** : $p < 0.01$ * : $p < 0.05$

이상의 공격성모형의 적합도와 발달궤적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무변화 모형과 선형모형 간 적합도를 비교하여 변화궤적을 파악한 결과 공격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공격성은 3년 동안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초기 값과 변화율의 상관성이 정(+)적인 관계로 1차 시점에서 수준이 높은 공격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공격성의 수준이 .059만큼 증가하는 반면, 1차 시점에서 수준이 낮은 공격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공격성수준의 변화가 느리게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격성 수준의 초기 값과 변화율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격성 수준의 초기 값과 변화율의 개인차이가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관계를 파악하는 다음 단계로의 연구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4. 학교생활적응의 발달궤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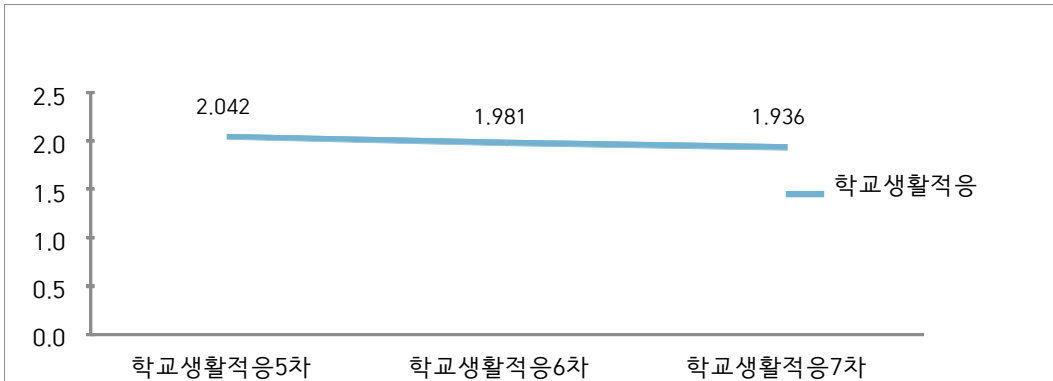
1) 학교생활적응의 측정 시점별 평균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의 발달궤적을 추정하기 전 학교생활적응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학교생활적

응의 전체 평균은 5차 시점(M=2.042)부터 6차 시점(M=1.981)까지는 감소하였지만, 6차 시점 이후인 7차 시점(M=1.936)에서는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의 평균값의 변화경향은 (그림 4-5)와 같다.

<표 4-12> 학교생활적응의 평균 및 표준편차

구분	5차		6차		7차	
	평균 (SE)	표준 편차	평균 (SE)	표준 편차	평균 (SE)	표준편 차
학교생활 적응	2.042 (.009)	.399	1.981 (.009)	.354	1.936 (.009)	.3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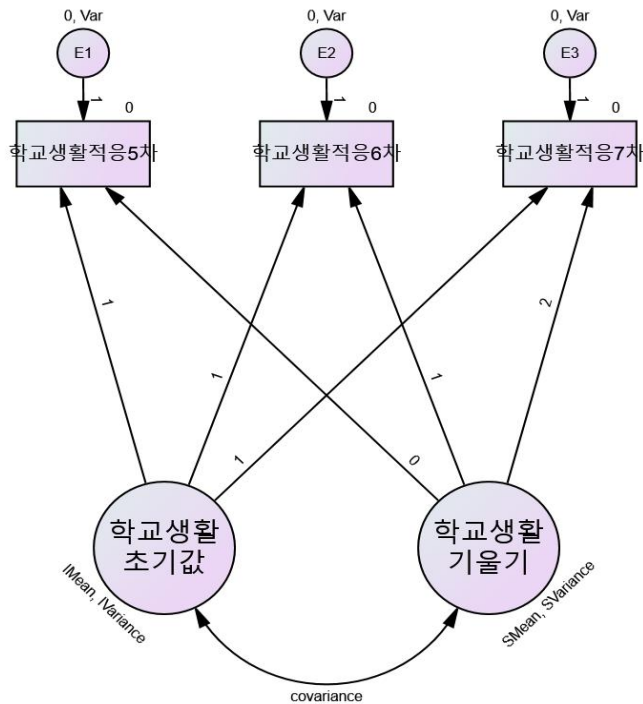
(그림 4-5) 학교생활적응요인 측정시점별 평균변화

2) 학교생활적응의 잠재 성장모형 및 발달궤적 적합도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요인의 변화양상에 대해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증하고 변화경향에 대한 모형을 도출하기 위하여 무변화 모형과 선형모형의 적합도와 모형에 대한결과를 비교하였다.

초기 값은 무변화 모형으로 3년간의 공격성 수준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고

가정하고서,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초기 값은 $X^2=35.461(df=2, p=.000)$ 이며, NFI=.980, RFI=.940, IFI=.981, TLI=.943, CFI=.981, RMSEA=.084로 나타났다. 반면에 선형모형의 경우에는 $X^2=18.503(df=3, p=.000)$ 이며. NFI는 .990, RFI=.979, IFI=.991, TLI=.982, CFI=.991, RMSEA=.047로 나타났다. 초기 값과 기울기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기울기의 적합도가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변화 모형과 비교해 선형모형이 자료에 대한 설명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6)의 모형을 통한 분석 자료는 <표 4-13>에 제시하였다.



(그림 4-6) 학교생활적응의 발달궤적 적합도

<표 4-13> 학교생활적응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구분	χ^2	df	P	NFI	RFI	IFI	TLI	CFI	RMSEA
무변화 모형	35.461	2	.000	.980	.940	.981	.943	.981	.084
선형모형	18.503	3	.000	.990	.979	.991	.982	.991	.047

최종모형으로 결정된 학교생활적응의 선형모형 발달궤적을 추정하였다. <표 4-14>와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생활적응의 초기 값의 평균은 2.038*** ($p < .001$)로 회귀추정식의 상수항으로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생활적응의 초기 값의 평균은 0이라는 영가설을 기각하며, 학교생활적응의 초기 값의 평균은 0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학교생활적응의 초기 값의 분산은 .103*** ($p < .001$)으로 의미 있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생활적응 초기 값의 평균 추정치 2.038를 기준으로 청소년 개인의 초기 값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흩어진 정도에 대한 C.R값이 20.088이며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생활적응의 초기 값의 기준에서 개인차가 유의하다는 것으로 최초 측정시점(중학교 2학년)의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의 정도가 청소년 개인 간에 다양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율의 평균은 $-.051^{***}$ ($p < .001$)으로 나타나 중학교 2학년 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3년 동안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의 정도는 평균적으로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변화율의 평균이 0이라는 영가설을 기각하게 되며, 1차 시점 증가할 때마다 학교생활적응이 $-.051$ 만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율의 분산은 $-.005^{***}$ ($p < .001$)로 변화율의 평균 추정치 $-.051$ 를 기준으로 청소년 개인의 변화율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흩어진 정도에 대한 C.R값이 3.367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3년 동안 학교생활적응이 변화하는데 있

어서 변화정도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청소년은 3년 동안 학교생활적응이 평균적으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청소년 개인 간의 변화는 다양하게 나타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이 감소하는 청소년도 있지만 반면 낮아지는 청소년도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초기 값과 기울기의 상관은 $-.009^{***}$ ($p < .001$)로 부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초측정시점에서 학교생활적응이 높은 청소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에 있어 느리게 감소하고, 최초 측정시점에서 학교생활적응이 낮은 청소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이 빠르게 감소함을 의미한다.

<표 4-14> 학교생활적응의 발달계적 추정치

매개변수(parameter)	평균(SE)	C.R	분산(SE)	C.R
초기값(intercept)	2.038(.009) ^{***}	23.532	.103(.004) ^{***}	20.088
기울기(Slope)	-.051(.004) ^{***}	-11.730	.005(.002) ^{***}	3.367
intercept-Slope 상관계수	-.009(.002) ^{***}	-4.229		

*** : $p < 0.001$, ** : $p < 0.05$, * : $p < 0.05$

이상의 학교생활적응모형의 적합도와 발달계적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무변화 모형과 선형모형 간 적합도 비교를 통하여 변화양상을 파악한 결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율의 평균은 3년 동안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초기 값과 변화율의 상관계수 결과 $-.009$ 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차 시점(중학교2학년)에서 학교생활적응이 높은 청소년은 시간(2차,3차)이 지날수록 학교생활적응 요인이 느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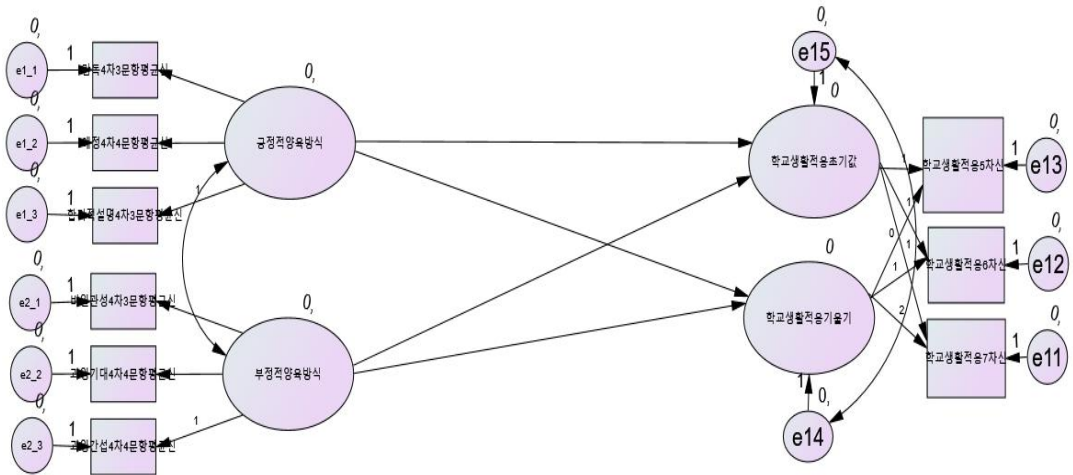
하는 반면, 1차 시점에서 학교생활적응요인이 낮은 청소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의 변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생활적응의 초기 값과 변화율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학교생활적응의 초기 값과 변화율에 다양한 개인차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제 4 절 다변량 잠재 성장모형 분석

부모의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및 우울, 공격성의 발달궤적을 통해서 연구변수들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한 결과, 각 변수의 추정된 잠재성장모형을 통해서 다 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긍정적·부정적인 양육방식이 학교생활적응과 우울, 공격성과의 관계를 추정하였다.

1. 부모의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부모의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의 발달궤적에 따른 종단적 관계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그림 4-7)과 같은 모형을 정립하여 두 개의 발달궤적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부모의 양육방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형의 전반적 적합도를 살펴보면, $X^2=334.975(df=2, p=.928)$, NFI=1.000, RFI=.999, IFI=1.000, TLI=1.000, CFI=1.000, RMSEA=.000으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그림 4-7) 부모의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의 발달계적 간 관계

부모의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발달계적 간 관계는 다 변량 잠재성장모형으로 추정하였다(<표 4-15> 참고).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은 발달계적의 초기 값과 변화율의 관계에 대한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의 잠재 성장모형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표 4-15> 부모의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발달계적 간 추정치

구분	β	S.E	C.R
부모의 양육방식 긍정적 -> 학교생활적응 Intercept	.415***	.014	15.234
부모의 양육방식 긍정적 -> 학교생활적응 Slope	-.100	.011	-2.502
부모의 양육방식 부정적 -> 학교생활적응 Intercept	-.056	.014	-2.154
부모의 양육방식 부정적 -> 학교생활적응 Slope	.008	.008	.210
intercept-Slope 상관계수	-.188***	.007	-7.344

*** : $p < 0.001$, ** : $p < 0.05$, * : $p <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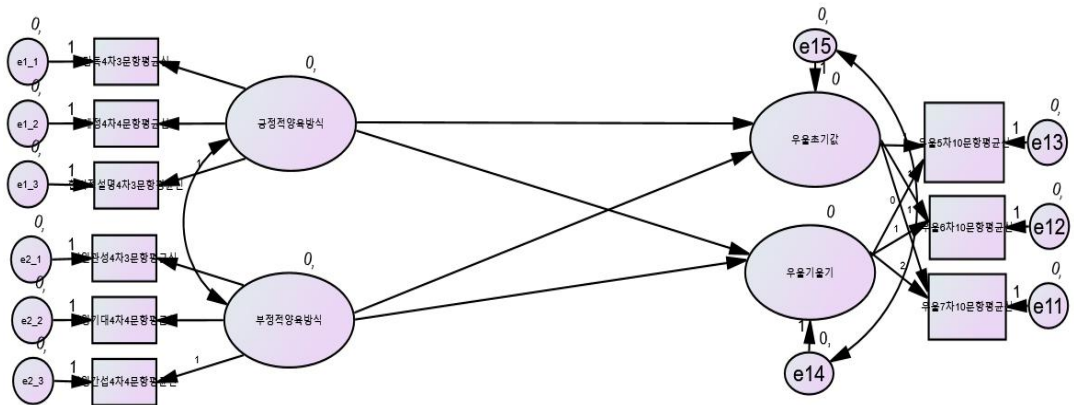
부모의 양육방식 중 긍정적 양육방식이 학교생활적응 초기 값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인 관계($\beta=.415^{***}$,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의 초기 값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이 높을수록 초기 학교생활적응의 수준도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방식 중 긍정적 양육방식이 학교생활적응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이 학교생활적응 초기 값과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방식의 상관관계 결과, 부적 관계($\beta=-.188^{***}$,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기 학교생활적응이 높을수록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이 천천히 감소하고, 초기 학교생활적응이 낮을수록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부모의 양육방식과 우울

부모의 양육방식과 우울의 발달궤적에 대한 종단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림 4-8)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여 두 개의 발달궤적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부모의 양육방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형의 전반적 적합도를 살펴보면, $X^2=291.236(df=22, p=.000)$, $NFI=.956$, $RFI=.911$, $IFI=.960$, $TLI=.917$, $CFI=.959$, $RMSEA=.072$ 으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부모의 양육방식과 우울의 발달궤적 간 관계를 다 변량 잠재성장모형으로 추정하였다<표 4-16>. 다 변량 잠재성장모형은 발달궤적의 초기 값과 변화율간의 관계를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방식과 우울수준의 잠재 성장모형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8) 부모의 양육방식과 우울의 발달궤적 간 관계

<표 4-16> 부모의 양육방식과 우울의 발달궤적 간 추정치

구분	β	S.E	C.R
부모의 양육방식 긍정적 -> 우울 Intercept	-.345***	.030	-11.583
부모의 양육방식 긍정적 -> 우울 Slope	.070	.016	1.386
부모의 양육방식 부정적 -> 우울 Intercept	.090	.021	3.099
부모의 양육방식 부정적 -> 우울 Slope	-.116	.012	-2.270
intercept-Slope 상관계수	-.191***	.007	-7.495

*** : $p < 0.001$, ** : $p < 0.05$ * : $p < 0.05$

부모의 양육방식 중 긍정적 양육방식이 우울수준 초기 값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인 관계($\beta = -.345$, *** $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의 초기 값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은 우울초기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이 우울수준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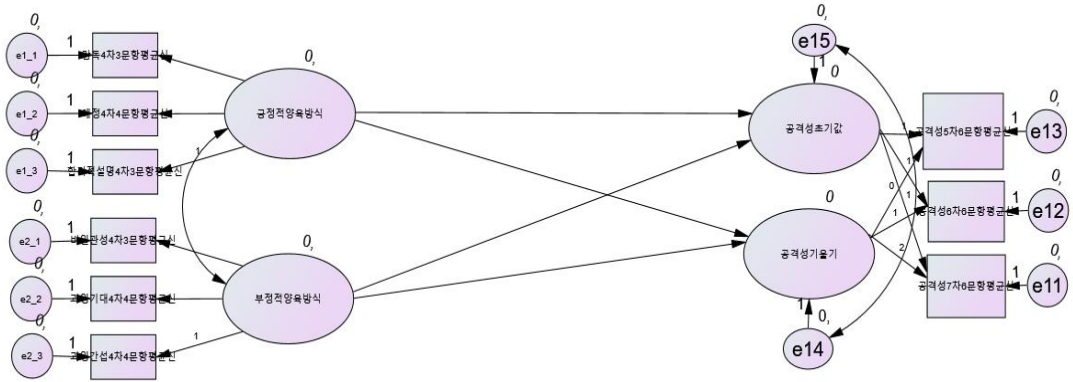
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의 우울 초기 값과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양육방식의 긍정적·부정적 양육방식의 초기 값과 변화율 간 상관관계 결과,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beta = -.191, *** p < .001$)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모 양육방식의 긍정적·부정적 양육방식의 초기 값과 변화율의 무변화로 인하여 1차 시점으로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여도 크게 변화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부모의 양육방식과 공격성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부정적 양육방식과의 공격성 수준의 발달궤적에 대한 종단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그림 4-9)와 같이 모형을 통하여 두 개의 발달궤적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부모의 양육방식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형의 전반적 적합도를 살펴보면, $X^2 = 301.621$ ($df = 22, p = .000$), $NFI = .953$, $RFI = .904$, $IFI = .956$, $TLI = .910$, $CFI = .956$, $RMSEA = .073$ 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방식과 공격성의 발달궤적 간 관계를 다 변량 잠재성장모형으로 가정하였다. 다 변량 잠재성장모형은 발달궤적의 초기 값과 변화율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방식과 공격성의 잠재 성장모형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4-9) 부모의 양육방식과 공격성의 발달단계 간 관계

<표 4-17> 부모의 양육방식과 공격성의 발달단계 간 추정치

구분	β	S.E	C.R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 -> 공격성 Intercept	-.303***	.029	-9.555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 -> 공격성 Slope	-.003	.011	-.049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 공격성 Intercept	.164***	.020	5.202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 공격성 Slope	-.117	.011	-1.902
intercept-Slope 상관계수	-.102	.091	-1.121

*** : $p < 0.001$, ** : $p < 0.05$ * : $p < 0.05$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이 공격성 초기 값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인 관계($\beta = -.303^{***}$, $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이 높을수록 공격성의 초기 값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이 공격성수준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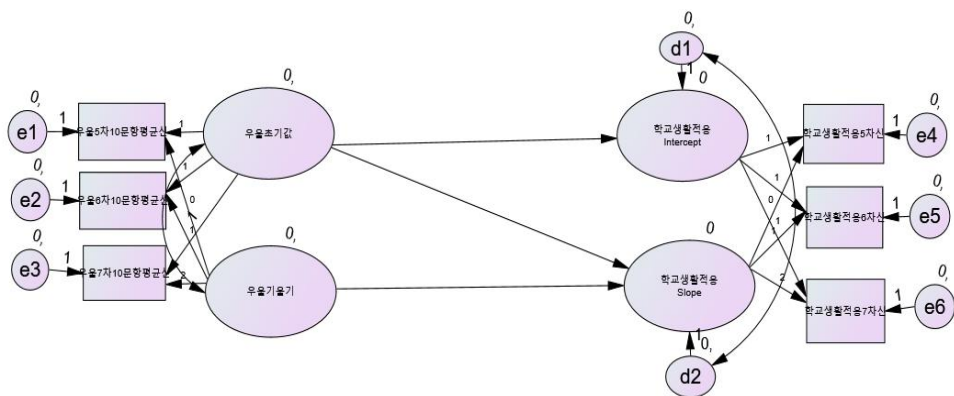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이 공격성 초기 값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인 관

계($\beta=.164^{***}$,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양육방식의 긍정적·부정적 양육방식의 초기 값과 변화율 간 상관관계 결과,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양육방식의 긍정적·부정적 양육방식의 초기 값은 변화율의 무변화로 인하여 1차 시점으로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여도 크게 변화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우울과 학교생활적응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의 발달체적에 대한 종단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그림 4-10)와 같이 모형을 설정하여 두 개의 발달체적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우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형의 전반적 적합도를 살펴보면, $X^2=80.624$ ($df=6$, $p=.000$), $NFI=.979$, $RFI=.928$, $IFI=.981$, $TLI=.933$, $CFI=.981$, $RMSEA=.072$ 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의 발달체적 간 관계를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으로 가정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은 발달체적의 초기 값과 변화율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의 잠재 성장모형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10)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의 발달체적 간의 관계

<표 4-18>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의 발달계적 간 추정치

구분	β	S.E	C.R
우울Intercept -> 학교생활적응 Intercept	-.561***	.023	-18.619
우울Intercept -> 학교생활적응 Slope	.020	.015	.336
우울 Slope -> 학교생활적응 Slope	-.692***	.090	-5.848
intercept-Slope 상관계수	-.422***	.005	-5.509

*** : $p < 0.001$, ** : $p < 0.05$ * : $p < 0.05$

우울의 초기 값이 학교생활적응 초기 값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인 관계($\beta = -.561^{***}$, $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의 초기 값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의 초기 값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의 초기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의 초기수준은 낮은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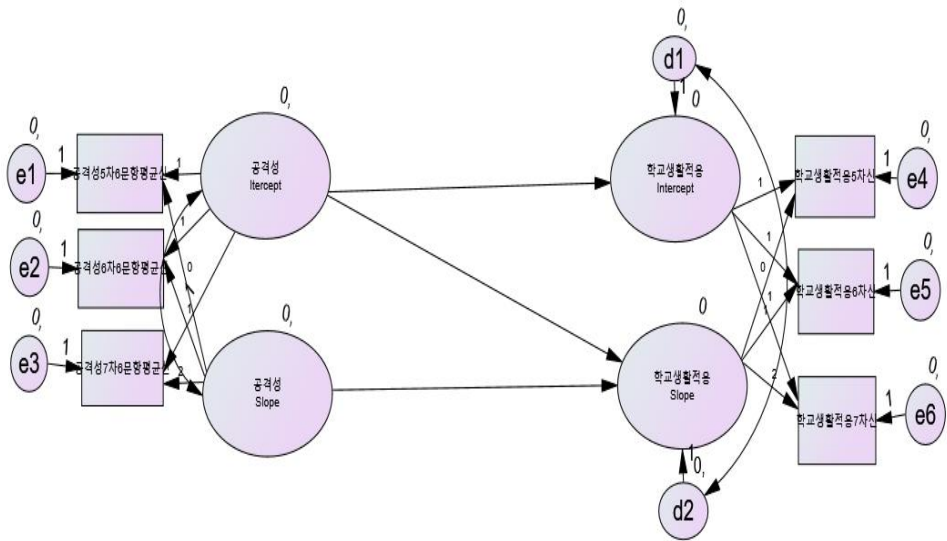
우울 초기 값이 학교생활적응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수준의 변화율이 학교생활적응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인 관계($\beta = -.692^{***}$, $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변화율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 변화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의 증가 속도가 빨라질수록 청소년의 우울 수준 감소가 느려진다고 할 수 있다.

우울의 초기 값과 변화율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유의미한 부적($\beta = -.422^{***}$, $p < .001$)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관성이 부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초기 우울이 높은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청소년들의 우울수준은 느리게 변화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5.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의 발달궤적에 대한 종단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그림 4-11)과 같이 모형을 설정하여 발달궤적 간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공격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형의 전반적 적합도를 살펴보면, $X^2=82.771(df=6, p=.000)$, $NFI=.978$, $RFI=-.924$, $IFI=.980$, $TLI=.929$, $CFI=.980$, $RMSEA=.073$ 으로 나타났다.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의 발달 궤적 간 관계를 다 변량 잠재성장모형으로 가정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은 발달궤적의 초기 값과 변화율의 추이에 대한 관계를 알 수 있다.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의 잠재성장모형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4-11)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의 발달궤적 간의 관계

<표 4-19>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의 발달궤적 간 추정치

구분	β	S.E	C.R
공격성Intercept -> 학교생활적응 Intercept	-.617***	.026	-19.444
공격성Intercept -> 학교생활적응 Slope	.053	.018	.859
공격성 Slope -> 학교생활적응 Slope	-.709***	.106	-5.676
intercept-Slope 상관계수	-.365***	.005	-4.587

*** : $p < 0.001$, ** : $p < 0.05$ * : $p < 0.05$

공격성의 초기 값이 학교생활적응 초기 값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인 관계($\beta = -.617^{***}$, $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격성의 초기 값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의 초기 값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의 초기 공격성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의 초기수준은 낮은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격성의 초기 값이 학교생활적응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 수준의 변화율이 학교생활적응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인 관계($\beta = -.709^{***}$, $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의 변화율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 변화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격성의 증가 속도가 빨라질수록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수준 감소가 느려진다고 할 수 있다.

공격성수준의 초기 값과 변화율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부적 상관관계($\beta = -.365^{***}$, $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관성이 부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초기 공격성이 높은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

1) 매개모형의 적합도 및 경로 추정

원인변수인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부정적 양육방식의 영향 아래에서 우울과 공격성 수준에 대한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매개역할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 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그림 4-12)와 같은 모형에 따라 매개모형에 대한 종단적 관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매개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살펴보면 $X^2=2132.699(df=71, p=.000)$, $NFI=.833$, $RFI=.818$, $IFI=.838$, $TLI=.824$, $CFI=.837$, $RMSEA=.101$ 로 모형의 적합성은 어느 정도 적절하게 나타났다. 매개모형에 대한 경로의 모수 추정치를 <표 4-20>에 제시하였다.

첫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은 공격성 초기 값에 $-.319^{***}(p<.001)$,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공격성의 변화율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일수록 공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은 우울 초기 값에 $-.390^{***}(p<.001)$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 일수록 우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은 공격성의 초기 값에 $.105^{***}(p<.001)$ 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격성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일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은 우울의 초기 값에 $.069^{***}(p<.001)$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화율에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일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은 학교생활적응의 초기 값에 $.166^{***}(p<.001)$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율에는 유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일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요인은 학교생활적응의 초기 값과 변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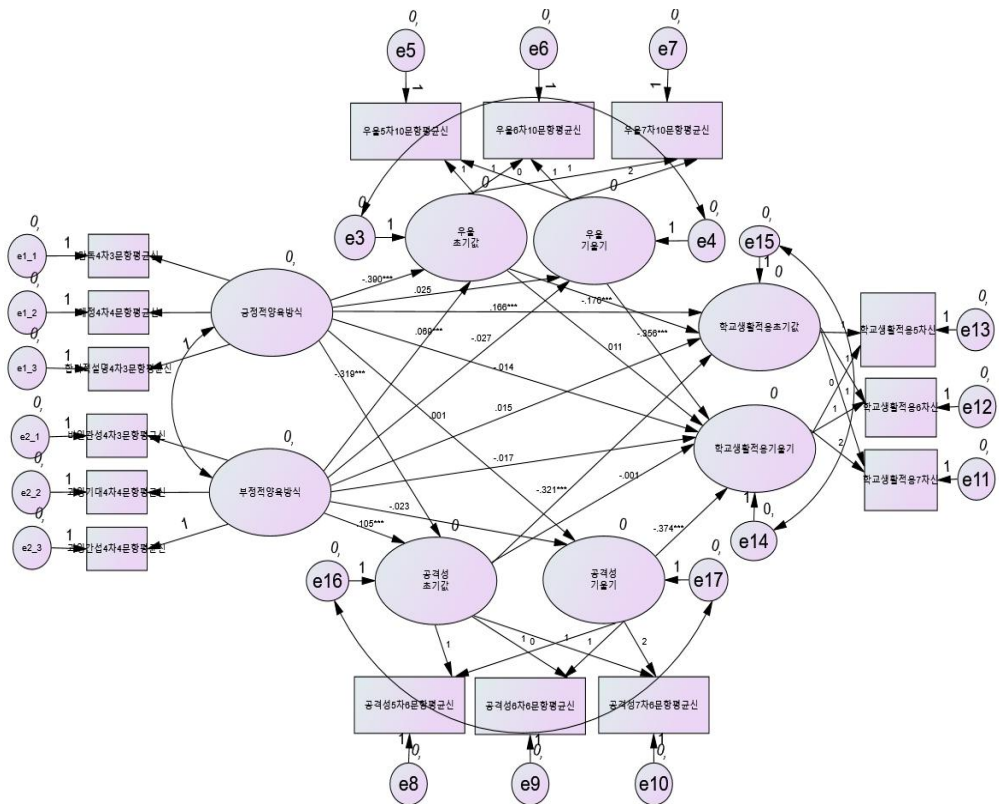
<표 4-20> 부모의 양육방식과 우울·공격성 및 학교생활적응 경로계수

경로		β	B	S.E	C.R
부 모 의 양 육 방 식	긍정적 -> 공격성 Intercept	-.319***	-.345	.028	-11.214
	긍정적 -> 공격성 Slope	.001	.003	.016	-.060
	긍정적 -> 우울 Intercept	-.390***	-.392	.030	-13.158
	긍정적 -> 우울 Slope	.025	.076	.016	1.560
	부정적 -> 공격성 Intercept	.105***	.157	.020	5.269
	부정적 -> 공격성 Slope	-.023	-.096	.012	-1.989
	부정적 -> 우울 Intercept	.069***	.096	.021	3.367
	부정적 -> 우울 Slope	-.027	-.113	.012	-2.345
	긍정적 -> 학교생활적응 Intercept	.166***	.226	.024	7.072
	긍정적 -> 학교생활적응 Slope	-.014	-.054	.015	.932
	부정적 -> 학교생활적응 Intercept	.015	.027	.014	1.055
	부정적 -> 학교생활적응 Slope	-.017	-.091	.009	-1.856
	공격성 -> 학교생활적응 Intercept Intercept	-.321***	-.401	.027	-11.940
	공격성 -> 학교생활적응 Slope Intercept	-.001	-.005	.017	-.082
공격성 -> 학교생활적응 Slope Slope	-.374***	-.479	.073	-5.139	
우울 -> 학교생활적응 Intercept Intercept	-.176***	-.237	.023	-7.774	
우울 -> 학교생활적응 Intercept Slope	.011	.044	.015	.754	
우울 -> 학교생활적응 Slope Slope	-.356***	-.457	.085	-4.192	

*** : $p < 0.001$, ** : $p < 0.05$, * : $p < 0.05$

공격성의 초기 값은 학교생활적응의 초기 값에 -0.321^{***} ($p < .001$)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의 변화율이 학교생활적응 초기 값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격성의 변화율이 학교생활적응요인의 변화율에 -0.374^{***} 로 만큼 영향을 미쳐 공격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초기 값은 학교생활적응의 초기 값에 -0.176^{***} ($p < .001$)만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의 초기 값이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우울의 변화율은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율에 -0.356^{***}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우울이 심할수록 학교생활적응수준이 더 낮다는 뜻이다.



(그림 4-12) 매개효과검증을 위한 다 변량 잠재 성장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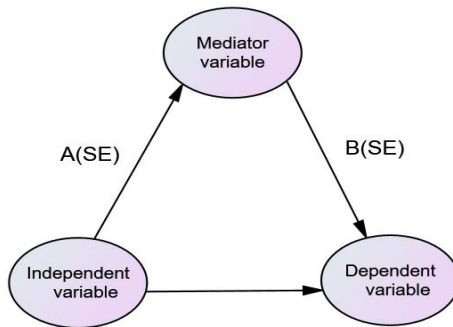
2)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

연구모형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부모의 양육방식과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두 개의 매개변수인 우울과 공격성이 갖는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인지 검증을 하였다.

Sobel(1986)공식은 a는 외생변수와 매개변수의, b는 매개변수와 내생변수의 비표준화계수를 말한다. S_a 는 a의 표준오차, S_b 는 b의 표준오차를 의미한다. 부모의 양육방식을 통한 매개효과(간접효과)는 (그림 4-13)에 제시된 a와 b를 곱한 $a*b$ 로 정의된다. $a*b$ 에 대한 Z검증을 실시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방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Z검증 공식은 다음과 같다.

$$z\text{-value} = a*b/\text{SQRT}(b^2*S_a^2+a^2*S_b^2)$$

표준 정규분포의 5% 유의수준에서 z-value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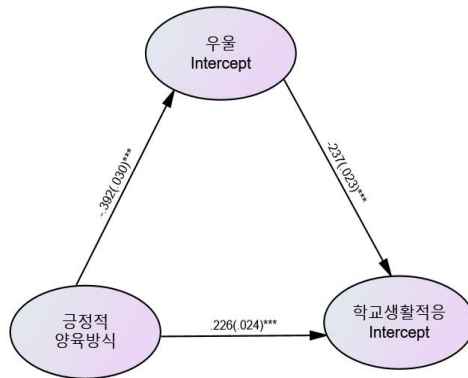


(그림 4-13) 매개모형

(1) 우울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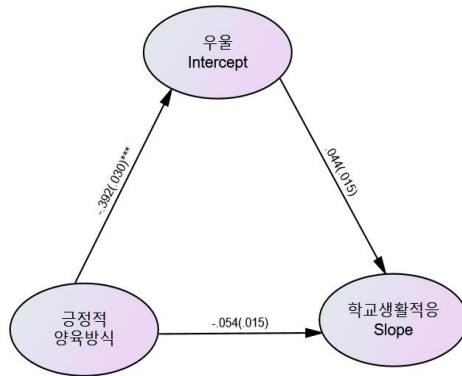
첫째, 우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의 초기 값과의 관계에서 우울의 초기 값의 매개효과는 $Z_{ab}=8.091$ 으로 .05수준

에서 유의하며, 이들과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역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4).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이 학교생활적응의 초기 값을 직접 높이거나 혹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이 우울의 초기 값을 낮추고, 동시에 낮아진 우울 초기 값이 학교생활적응수준을 높이는 우울 초기 값의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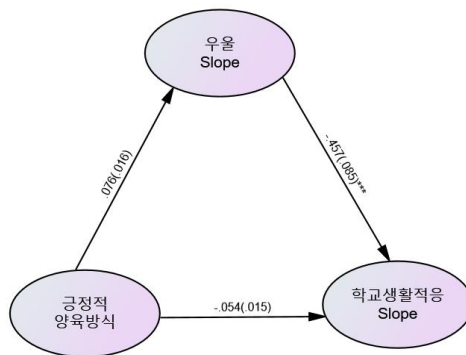
(그림 4-14)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초기 값 간의 우울초기 값의 매개효과

둘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요인과 학교생활적응 변화율과의 관계에서 우울 초기 값의 매개효과는 $Z_{ab} = -2.862$ 로 .05수준에서 유의하였다(그림 4-15). 그러나 우울 초기 값이 학교생활적응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이 학교생활적응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으므로 긍정적양육 방식과 학교생활적응 수준 변화율과의 관계에서 우울 초기 값은 매개역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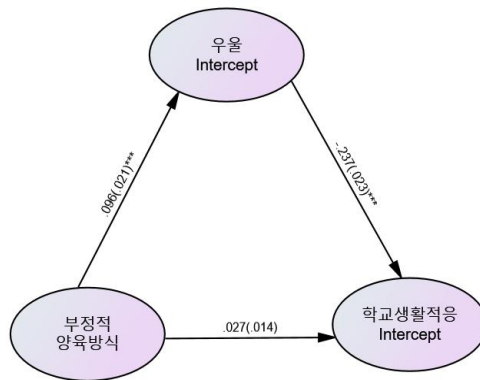
(그림 4-15)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변화율 간의 우울 초기 값의 매개효과

시간 경과에 따른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율과의 관계에서 우울의 변화율에 매개효과 $Z_{ab} = -4.750$ 으로 .05수준에서 유의하였다(그림 4-16). 그러나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이 우울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이 학교생활적응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우울 변화율의 매개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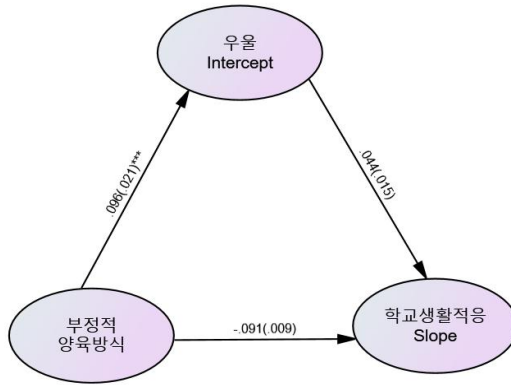
(그림 4-16)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변화율간의 우울 변화율의 매개효과

셋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우울 초기 값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부정적 양육 방식의 우울 초기 값과 학교생활적응의 초기 값의 매개효과는 $Z_{ab} = -4.179$ 로 .05수준에서 유의하며, 우울 초기 값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초기 값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7).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이 높으면 우울 초기 값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동시에 높아진 우울 초기 값이 학교생활적응 초기 값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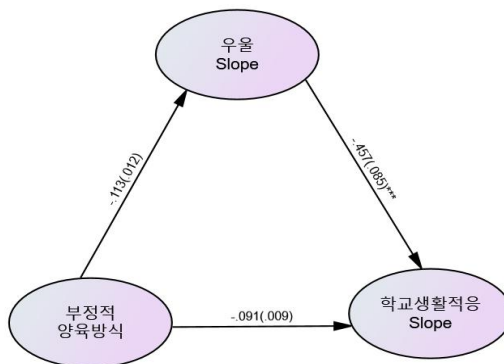
(그림 4-17)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초기 값 간의
우울 초기 값의 매개효과

넷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요인과 학교생활적응 변화율과의 관계에서 우울 초기 값의 매개효과는 $Z_{ab} = -2.161$ 로 .05수준에서 유의하였다(그림 4-18). 그러나 우울 초기 값이 학교생활적응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이 학교생활적응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으므로, 우울 초기 값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8)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변화율간의
우울 초기 값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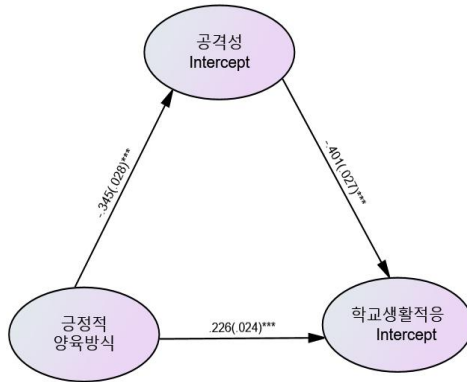
다섯째, 시간경과에 따른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율과의 관계에서 우울 변화율의 매개효과는 $Z_{ab}=4.669$ 로 .05수준에서 유의하였다(그림 4-19). 그러나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이 우울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이 학교생활적응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으므로 우울 변화율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9)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변화율간의
우울 변화율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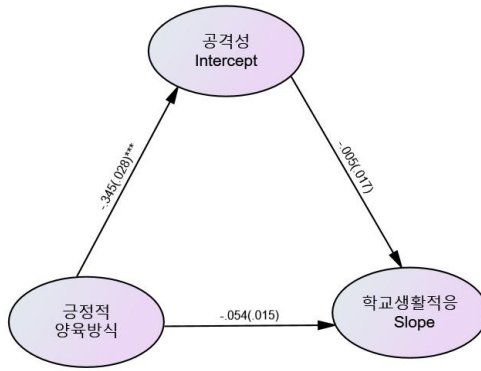
(2) 공격성의 매개효과

첫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요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 요인이 공격성요인 초기 값과 학교생활적응의 초기 값의 매개 효과는 $Z_{ab}=9.483$.05수준에서 유의하였다(그림 4-20).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은 학교생활적응의 초기 값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이 공격성의 초기 값을 낮추고, 동시에 낮아진 공격성의 초기 값이 학교생활적응의 초기 값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공격성 초기 값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초기 값 사이에서 부분 매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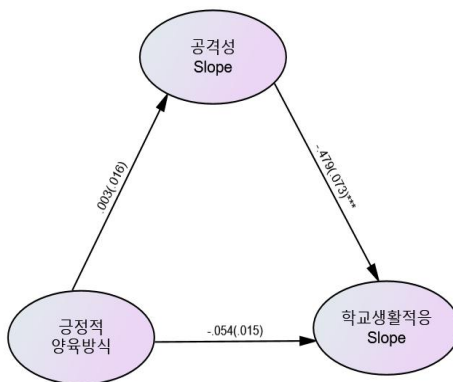
(그림 4-20)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초기 값 간의 공격성 초기 값의 매개효과

둘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 요인과 학교생활적응 변화율과의 관계에서 공격성 초기 값의 매개효과는 $Z_{ab}=0.294$ 로 .05수준에서 유의하였다(그림 4-21). 그러나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이 학교생활적응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과 공격성의 초기 값과 학교생활적응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으므로 공격성 초기 값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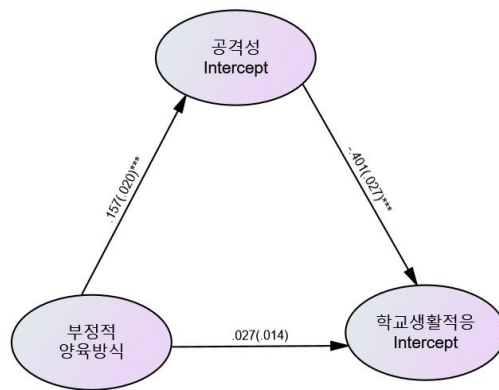
(그림 4-21)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변화율간의 공격성 초기 값의 매개효과

셋째, 시간경과에 따른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율과의 관계에서 공격성 변화율의 매개효과는 $Z_{ab} = -0.187$ 로 .05수준에서 유의하였다(그림 4-22). 그러나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이 학교생활적응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이 공격성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격성 변화율의 매개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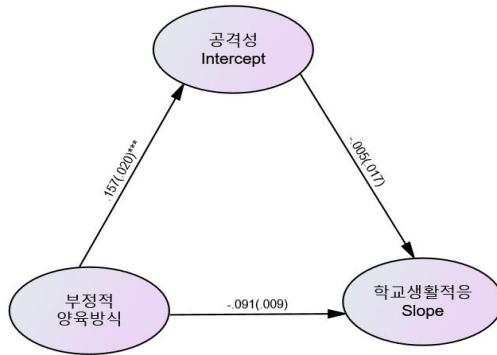
(그림 4-22)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변화율간의 공격성 변화율의 매개효과

넷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에 대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의 공격성요인 초기 값과 학교생활적응의 초기 값의 관계에서 공격성 초기 값의 매개효과는 $Z_{ab} = -6.940$ 으로 .05수준에서 유의하였다(그림 4-23).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이 공격성 초기 값을 높이고 동시에 높아진 공격성이 학교생활적응 초기 값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이 학교생활적응 초기 값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격성 초기 값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초기 값 사이에서 완전매개변수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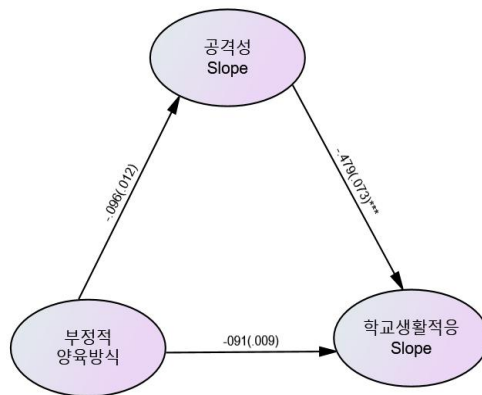
(그림 4-23)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초기 값 간의 공격성 초기 값의 매개효과

다섯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수준 변화율과의 관계에서 공격성 초기 값의 매개효과는 $Z_{ab} = -2.294$ 로 .05수준에서 유의하였다(그림 4-24). 그러나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이 학교생활적응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과 공격성 초기 값이 학교생활적응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격성 초기 값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4-24)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변화율간의 공격성 초기 값의 매개효과

여섯째, 시간경과에 따른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변화율과의 관계에서 공격성 변화율의 매개효과는 $Z_{ab}=5.073$ 으로 .05수준에서 유의하였다(그림 4-25). 그러나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이 학교생활적응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이 공격성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격성 변화율의 매개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림 4-25)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변화율간의 공격성 변화율의 매개효과

<표 4-21> 매개효과 경로계수와 매개효과 검증

경로	a		b		Zab
	Estimate	S.E	Estimate	S.E	
긍정적 -> 우울 -> 학교생활적응 Intercept Intercept	-.392***	.030	-.237***	.023	8.091
긍정적 -> 우울 -> 학교생활적응 Intercept Slope	-.392***	.030	.044	.015	-2.862
긍정적 -> 우울 -> 학교생활적응 Slope Slope	.076	.016	-.457***	.085	-4.750
부정적 -> 우울 -> 학교생활적응 Intercept Intercept	.096***	.021	-.237***	.023	-4.179
부정적 -> 우울 -> 학교생활적응 Intercept Slope	.096***	.021	.044	.015	-2.161
부정적 -> 우울 -> 학교생활적응 Slope Slope	-.113	.012	-.457***	.085	4.669
긍정적 -> 공격성 -> 학교생활적응 Intercept Intercept	-.345***	.028	-.401***	.027	9.483
긍정적 -> 공격성 -> 학교생활적응 Intercept Slope	-.345***	.028	-.005	.017	0.294
긍정적 -> 공격성 -> 학교생활적응 Slope Slope	.003	.016	-.479***	.073	-0.187
부정적 -> 공격성 -> 학교생활적응 Intercept Intercept	.157***	.020	-.401***	.027	-6.940
부정적 -> 공격성 -> 학교생활적응 Intercept Slope	.157***	.020	-.005	.017	-0.294
부정적 -> 공격성 -> 학교생활적응 Slope Slope	-.096	.012	-.479***	.073	5.073

*** : $p < 0.001$, ** : $p < 0.05$, * : $p < 0.05$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부정적 양육방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수준을 분석하고, 이러한 변수들 관계에서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역할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높여 주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범주들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1. 부모의 양육방식, 우울, 공격성으로 인한 학교생활적응의 실태 분석

첫째, 부모양육방식 중 긍정적 양육방식의 4차 시점 평균은 1.849, 부정적 평균은 4차 시점 2.580으로 나타났다. 3차년의 적합도 결과가 무변화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4차만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둘째, 우울의 5차 시점 평균은 3.225, 6차 시점 3.223, 7차 시점 3.215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도는 무변화 모형과 비교한 결과, 선형모형이 더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격성의 5차 시점 평균은 3.049, 6차 시점 3.068, 7차 시점 3.167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적합도는 무변화모형과 비교한 결과, 선형모형이 더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생활적응의 5차 시점 평균은 2.042, 6차 시점 1.981, 7차 시점 1.936으로 6차 시점까지는 감소하였지만 7차 시점에서는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적합도는 선형모형이 무변화 모형보다 더 적합도가 좋은것으로 나타났다.

2. 부모의 양육방식, 우울, 공격성으로 인한 학교생활적응의 개인차 분석

첫째, 부모의 양육방식은 앞서 언급되었듯이 3차년도와 4차년도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무변화로 4차 년도만을 사용하게 되어 변화에 대한 개인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둘째, 우울수준의 초기 값의 분산은 $.198^{***}(p<.001)$ 기울기의 분산은 $.018^{***}(p<.001)$ 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다양한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격성의 초기 값과 변화율의 분산은 $.160^{***}(p<.001)$, $.008^{*}(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다양한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생활적응의 초기 값의 분산은 $.103^{***}(p<.001)$ 로 기울기의 분산은 $.005^{***}(p<.001)$ 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다양한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모의 양육방식이 우울, 공격성, 학교생활적응의 변화궤적에 미치는 영향분석

첫째, 부모의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의 변화궤적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초기 값은 $.415^{***}(p<.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의 초기 값과 변화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양육방식과 우울의 변화궤적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우울의 초기 값은 $-.345^{***}$ ($p < .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우울의 변화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우울의 초기 값과 변화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양육방식과 공격성의 변화궤적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공격성의 초기 값은 $-.303^{***}$ ($p < .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공격성의 변화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공격성의 초기 값은 $.164^{***}$ ($p < .001$)로 나타났으나, 변화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의 변화궤적에서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의 초기 값은 $-.561^{***}$ ($p < .001$)이며,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율은 $-.692^{***}$ ($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부모의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첫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의 학교생활적응의 초기 값과 우울 초기 값의 매개효과는 부분매개 역할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의 학교생활적응 변화율과 우울 초기 값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변화율간의 우울 변화율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초기 값 간의 우울 초기 값의 매개효과는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의

학교생활적응 변화율과 우울 초기 값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의 학교생활적응 변화율과 우울 변화율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부모의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의 변화궤적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분석

첫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초기 값 간의 공격성 초기 값의 매개효과는 부분매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변화율간의 공격성 초기 값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변화율간의 공격성 변화율의 매개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초기 값 간의 공격성 초기 값의 매개효과는 완전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변화율간의 공격성 초기 값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변화율간의 공격성 변화율의 매개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독립변수로는 부모의 양육방식, 종속변수로는 학교생활적응, 매개변수로는 우울과 공격성을 주요 연구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이 변수들 사이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구축하고 그에 따른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국의 중학교 1학년~고1학년 집단이며, 분석대상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발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의 초4패널 제4차~7차년도 자료이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전국의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집단을 대상으로 2013년~2016년까지 매년 10월~12월에 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위와 같은 자료를 통한 가설의 검증을 위한 분석은 SPSS 24와 AMOS 2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자료 분석방법은 첫째, 패널데이터에 대한 점검과 관련하여 주요 변수의 특성과 자료 분포의 정규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둘째, 본 연구변수들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셋째, 변화모형 설정과 발달궤적 추정을 위해 신뢰도 분석을 하였고, 적합도 분석은 무 변화모형과 선형모형의 검증을 위해 실시하였다. 넷째, 다변량 잠재 성장모형 분석은 매개효과와 각 변수의 직·간접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제 2 절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1. 부모의 양육방식, 우울, 공격성, 학교생활적응의 발달궤적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부정적 양육방식의 우울, 공격성, 학교생활적응 요인의 발달궤적 분석결과에 대해서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방식의 변화양상에 대해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증하고 변화경향에 대한 모형을 도출하기 위하여 3년간의 자료를 무 변화 모형과 선형 모형의 적합도와 모형에 대해 비교한 결과 무변화로 4차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부정적 양육방식을 선정한 것은 적절한 변수의 선정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청소년 우울수준의 무변화 모형과 선형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선형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형모형을 통해 우울요인의 발달궤적을 추적하였다. 청소년의 우울수준의 평균은 미미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우울의 변화율(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요인 초기 값 및 변화율의 분산이 유의하다는 결과는 우울요인 수준과 변화는 학생들 개인 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울요인은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변화정도는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점차 이슈화 되고 있는 우울요

인으로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단기적인 개입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과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우울의 분산은 $.018^{***}$ ($p < .001$), 상관계수는 $-.024^{***}$ ($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값과 기울기 변화율의 분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우울의 초기 값 분산은 물론이고 변화율의 분산에서 개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우울의 초기 값과 변화율의 상관은 $-.024^{***}$ ($p < .001$)로 부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초 측정시점에서 청소년의 우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가 느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공격성 요인의 무변화 모형과 선형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선형 모형의 적합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 초기 값의 평균은 3.037^{***} ($p < .001$), 변화율의 평균은 $.059^{***}$ ($p < .001$), 분산은 $.160^{***}$ ($p < .001$), $.008^*$ ($p < .0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는 $-.012^{**}$ ($p < .0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값이 1차 시점 증가할 때마다 $.059$ 만큼 공격성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공격성 모형의 적합도 수준과 발달궤적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무 변화모형과 선형모형 간 적합도의 비교를 통하여 변화경향을 분석한 결과, 공격성 수준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유의하게 변화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개인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부정적 양육방식에 따라 3년 동안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초기 값과 변화율의 관계는 정(+)적인 관계로 1차 시점에서 수준이 높은 공격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공격성의 수준이 천천히 증가하는 반면, 1차 시점에서 수준이 낮은 공격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공격성의 수준의 변화가 빠르게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학교생활적응 요인의 초기 값과 기울기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기울기의 적합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 변화모형과 비교했을 때 선형모형이 자료를 더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생활적응의 변

화율의 평균은 $-.051^{***}$ ($p < .001$), 분산은 $.005^{***}$ ($p < .001$), 상관계수는 $-.009^{***}$ ($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변화율이 1차 시점 증가할 때 마다 .051만큼 학교생활적응 요인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값과 기울기 변화율의 변량이 의미 있게 나타나 학교생활적응의 초기 값은 물론이고 변화율에서 여러 가지 개인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생활적응의 초기 값과 변화율의 상관은 $-.009^{***}$ ($p < .001$)로 부적(-)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최초 측정시점에서 학교생활적응 요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가 느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교생활적응요인의 다변량 잠재 성장모형 분석결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 부정적 양육방식과 우울, 공격성, 학교생활적응요인의 다 변량 잠재 성장모형 분석결과에 대해서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방식이 학교생활적응의 다 변량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였다.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방식의 발달 궤적 간 직접적인 관계를 분석한 다 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방식이 학교생활적응의 초기 값에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일 때 학교생활적응의 초기수준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이 학교생활적응의 직접적인효과를 설명한 선행연구(오미섭·변해진, 2013, 김지혜 외, 2017)들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이 청소년들의 발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학교생활적응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방식의 안정화를 위한 초기개입과 지속적인 실천이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 부정적 양육방식과 우울, 공격성 간의 발달

궤적 간 직접적인 관계를 분석한 다 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긍정적 양육방식일 때 우울과 공격성의 초기 값은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화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 양육방식일 때는 우울의 초기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공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율은 우울과 공격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는 우울과 공격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 초기에 우울과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가 없었으나, 청소년의 우울수준의 개인차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긍정적 양육방식일 때는 우울과 공격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부정적인 양육방식을 보일 때는 우울과 공격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수준이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설명한 선행연구(유지혜, 한재희, 2009, 구희정, 2013)와 같은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주 양육자에 따른 선행연구(홍원영 외, 2005)를 보면 주 양육자에 따라 곧 바로 자녀의 태도와 행동에 그대로 직결되며 자아개념과 행동양식에 일생을 통하여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해보면 부모의 양육방식이 청소년들의 우울이나 공격성 등 행동양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말한다.

셋째, 우울과 학교생활적응,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에 대한 발달궤적 간 직접적인 관계를 분석한 다 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우울과 학교생활적응 초기 값과,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의 초기 값은 부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과 공격성의 초기 값이 높을 수록 학교생활적응의 초기 값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의 초기 공격성과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의 초기수준은 낮은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울과 공격성의 초기 값과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울, 공격성의 변화율과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율은 부(-)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공격성의 변화율이 높을

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 변화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 공격성의 증가 속도가 빨라 질 수록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수준 감소가 느려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울, 공격성의 상관계수도 부(-)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기 우울과 공격성이 높을수록 우울과 공격성의 변화율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초기 우울과 공격성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학교생활적응도가 서서히 증가하고 초기 우울과 공격성수준이 낮은 청소년은 공격성 수준이 빠르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제 3 절 연구결과의 시사점

1.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부정적 양육방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특히 이러한 변수들 관계에서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역할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부정적 양육방식이 우울과 공격성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Agnew(1992)의 일반 긴장이론을 통해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일반긴장이론의 시각에서 해석하자면,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방식은 부정적인 자극을 경험하는 일이며, 이는 우울과 공격성이라는 정서적 반응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종단분석을 통한 실증분석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방식의 발달궤적 분석을 통하여 부모의 양육방식은 한번 고착되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둘째, 우울, 공격성, 학교생활적응의 종단분석을 통한 발달궤적의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① 우울은 최초 측정시점에서 우울의 초기치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변화의 증가속도는 느려지며, 초기치가 낮은 청소년의 경우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우울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어떤 청소년은 우울의 정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지만, 일부 청소년은 느린 속도로 증가하기도 하며, 반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청소년도 존재할 수 있으며, 청소년에 대한 우울의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 증가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공격성의 분석결과는 청소년의 공격성은 3년 동안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1차(중학교 2학년)시점에서 수준이 높은 공격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공격성의 수준이 증가하는 반면, 1차 시점에서 수준이 낮은 공격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공격성수준의 변화가 느리게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③ 학교생활적응의 발달궤적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율의 평균은 3년 동안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초기 값과 변화율이 상관계수는 부적의 관계로, 이는 1차 시점(중학교 2학년)에서 학교생활적응이 높은 청소년은 2차,3차 경과함에 따라 학교생활적응 요인이 느리게 증가하는 반면, 1차 시점에서 학교생활적응요인이 낮은 청소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의 변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생활적응의 초기 값과 변화율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청소년의 다양한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었다.

이로써 본 연구는 부모양육방식, 우울, 공격성, 학교생활적응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떠한 변화양상을 나타내는지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발달에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를 규명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요인의 관계를 살펴는데 있어서 기존의 횡단연구에서 벗어나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변수들의 발달궤적을 분석하여 보다 복잡한 인과관계를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요인을 살피고 논리적으로 영향력을 설명하는 경험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아직 횡단적으

로 인과관계를 살피고 있으며, 종단적인 관계를 살피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종단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힘으로써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다양한 실천적 개입방향을 제시하는 기초를 마련함과 동시에 기존 이론의 지식체계의 지평을 넓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사이에서 우울과 공격성이 유의한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매개변수 개입에 대한 중요성을 말할 수 있으며, 기존의 횡단적인 연구의 한계점을 뛰어넘은 종단분석의 결과로서 이론적인 면에서 관련 지식의 외연을 확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이 학교생활적응의 초기 값을 직접 높이거나 혹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이 우울의 초기 값을 낮추고, 동시에 낮아진 우울 초기 값이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높이는 우울 초기 값을 부분 매개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우울 초기 값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초기 값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이 높으면 우울 초기 값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동시에 높아진 우울 초기 값이 학교생활적응 초기 값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이 공격성의 초기 값을 낮추고 동시에 낮아진 공격성의 초기 값이 학교생활적응의 초기 값을 높이고 있다. 공격성 초기 값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초기 값 사이에서 부분매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공격성 초기 값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초기 값 사이에서 완전매개변수의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이 공격성의 초기 값을 낮추고 동시에 낮아진 공격성의 초기 값이 학교생활적응의 초기 값을 높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부분 매개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이

학교생활적응 변화율과 공격성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에 대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공격성 초기 값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초기 값 사이에서 완전매개변수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이 학교생활적응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과 공격성 초기 값이 학교생활적응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우울과 공격성을 매개효과로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방식이 학교생활적응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종단 분석하였다. 부모의 긍정적양육방식과 부정적양육방식의 결과로서 학교생활적응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고 시간경과에 따른 개인 간 다양한 차이가 있음을 포함으로써 적응도에 대한 개인차를 설명할 수가 있었다. 또한 부모양육방식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는 연구 관점에서 벗어나 동일한 상황에서도 다양한 영향요인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거나 완화할 수 있는 과정에 초점을 두어 청소년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2. 실천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연구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변수일 뿐만 아니라 공격성이 학교생활적응을 낮추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부정적인 양육방식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사후에 교정하기 위한 개입의 초점도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방식에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즉,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방식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바람직하지 않는 양육방식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부정적인 양육방식이 공격성을 높이고 학교생활적응을 낮추는데 악영향을 미치

기도 한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방식이 학교생활적응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청소년의 다양한 개인 차이를 고려한 개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매개변수는 우울과 공격성이었다. 우울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학교생활적응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개입이 될 것이므로 우울문제에 대처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우울이 학교생활적응을 낮추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신적 개입이 필요한 질병으로서 약물치료, 상담, 심리치료 등의 적극적인 개입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김정민·송수지, 2015).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의 양육방식은 한번 고착되면 좀처럼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 자녀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행동양식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결혼 적령기에 있는 미혼들에게는 부모 될 준비를 위한 부모교육 및 자녀 양육을 위한 다각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개입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들에게는 부모 자녀 하나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안정된 정서를 갖는다면, 건전한 학교생활을 통해서 원만한 사회화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우울과 공격성을 낮추고 학교생활적응을 높이는 실천적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녀와 부모와의 원만한 관계의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격성과 우울증상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청소년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 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상담, 의뢰 등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 및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양육방식의 불일치로 갈등을 겪고 있는 자녀와 부모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의 건강한 학교

생활과 행복지수를 높여 주기 위한 정부의 청소년 관련 정책의 개발과 청소년이 보호 받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청소년 관련법의 개정활동과 지속적인 보완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 4 절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연구모형의 적합성과 연구가설을 검증, 그리고 잠재성장모형에 의한 종단적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의 수준을 높여 주었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과 그에 따른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통합적인 구조적 연구모형과 관련된 부분이다. 본 연구는 학교생활적응의 이론적 부분에 대한 논의와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인식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부모의 양육방식과 우울 및 공격성을 연구변수로 선정하였으나 이외의 영향변수가 다루어지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한정성문제이다. 본 연구에 활용한 데이터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제4~7차 중 독립변수는 4차를, 종속, 매개변수는 5~7차를 사용하였으나 중1~고1까지의 자료로 부모양육방식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학교생활적응과의 인과관계를 그리고 공격성과 우울이 매개하는지를 확인하였으나, 패널데이터의 한정된 설문자료 때문에 변수선정의 폭이 한계가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부모양육방식에 대한 여러 변수들이 고려될 수 있도록 질적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해석은 일반화에 주의를 요한다.

셋째, 향후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을 분석하는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 변화무

쌍한 청소년들을 변화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가 어떠한 변수인지 또한 시간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들은 어떠한지. 예를 들면, 본 연구의 변수기준으로 봤을 때 학교생활적응에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규칙, 학습활동 4개의 변수를 본 연구는 년차별 평균을 내어 검증하였는데. 후속연구에는 청소년들의 세부적인 변화를 각 변수를 종단연구로 검증해 본다면 좀 더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변화 시킬 수 있는 실천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종단적으로 이러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사회복지적 함의를 보다 더 다양하게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1) 단행본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2).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김계수(2009). 「잠재성장 모델링과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김성이·강지원·구본용·황순길(1996). 「청소년 비행 상담」, 서울: 청소년대화의광장.

김준오·김은경(1995).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3). 「2013년 스마트폰 중독 실태조사」.

성태제(2014). 「현대기초통계학 이해와 적용 7판. 한글SPSS 21.0을 이용한 자료 분석」, 서울: 학지사.

송지준(2012).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통계분석방법」, 서울: 21세기사.

송태민(2013). 「빅데이터 분석방법론 구조방정식모형과 다층모형을 중심으로」,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우종필(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 Amos 4.0-20.0 공용」,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전영실·기광도(2009). 「저연령소년의 비행실태 및 대책」,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6). 「2016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최인재·이기봉(2010). 「한국청소년지표조사 V : 청소년 건강실태 국제비교 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계청(2013). 「2013 청소년 통계」.

통계청(2015). 「2015 한국의 사회지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 논 문

- 강정남(2017).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 및 분노조절능력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귀애(2015). “부모-자녀 애착관계가 청소년의 공격성과 대인관계 및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지훈(2004). “남여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혜정(2017). “청소년이 지각한 부와 모의 양육태도와 우울, 불안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검증”, 침례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윤정(201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및 비행경험의 조절효과”, 서울기독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나경(2011). “부모양육방식과 아동의 성격특질 및 자기조절력의 관계”, 대진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민지(2016).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방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배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서연(2018).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학교 및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봉(2014). “다문화가정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력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인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숙(201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애착 및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구조관계”,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지윤(2017).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회복탄력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백하(2013).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2014).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내현적 자기애,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관계분석”,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지혜(2014).“부모양육태도와 또래애착이 휴대전화 의존을 매개로 청소년의 자기조절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39, 42-61
- 김진숙·문현주·황승일(2014).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공격성의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27, 1-24.
- 김재엽·송아영·박경나(2008),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한 청소년 지위비행에 관한 연구:긴장요인으로서의 자녀학대경험을 중심으로”. 「사회 복지연구」, 37, 295-318.
- 김태현·김석우(2012). “여중생의 우울 및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혁신연구」, 22(1), pp.67-87.
- 김혜금(201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어머니-자녀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 가정학회지」, 50(6), 65-75
- 노충래(2002),“아동 및 가해자의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의 심각성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3, 123-154.
- 류희정(2009).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치유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재윤(2012).“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빈곤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미희(2015). “성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5), pp.73-89.
- 문병욱·황혜원(2006).“Agnew의 일반긴장이론을 통한 한국 청소년의 비행이해”, 「아동권리연구」, 10(2), 127-150.
- 문은식·김충희(2002),“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162(2), 21-241

- 박광원·강현옥(2016). “스포츠클럽 활동 청소년의 공격성이 사회적 지지, 자기 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검증”, 「한국체육과학회지」, 25(4), pp.397-411.
- 박미경·오현주(2016). “민주적 양육방식이 취업모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2), pp.249-270.
- 박석민(201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불안, 우울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소윤(2017).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또래애착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우울, 공격성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순주(2011). “빈곤아동의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 자기조절학습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담 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윤정(2009).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대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지영(2010). “부모의 양육태도와 초등학생의 우울 및 공격성의 관계”,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장섭(2017). “부모양육방식, 주의집중력, 삶의목표가 청소년의 삶의 습관에 미치는 영향”, 국제뇌교육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백미화(2008). “부모-자녀 의사소통유형 및 부모의 양육태도 변인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 성숙 변인간의 관계.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백은라(2018). “부모의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변명숙(2005). “부모의 성역할 유형과 양육방식이 아동의 성역할 특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원·이용택(2018).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과 우울의 관계”, 「청소년문화포럼」, 55, pp.53-75.

- 서석남·이상구·임상호(2012). “청소년이 느끼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자기 효능감, 스트레스, 우울,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0(8), pp.327-333.
- 성환재(2012). “부모의 양육태도가 폭력청소년의 자아상태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성효정(2014). “가정 내 학대경험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공격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정희(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접변태도,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주혜(2009). “중학생의 공격성과 학교적응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 효능감 및 자기 통제력의 조절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현진·이일현·이현실(2014), “일반긴장이론을 이용한 중학생의 휴대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2), 355-363.
- 안윤정·현진희(2015). “청소년의 우울 및 가족기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1, pp.111-135.
- 오미섭(2013). “부모의 양육태도와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가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공동체 의식 매개효과”, 호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현정(2015). “1인가구의 경제적 요인과 생활만족도 및 우울관계에 관한 중단연구: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우수경·김기예(2013). “청소년의 성, 학교급, 시험불안 및 우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2(2), pp.165-195.
- 유지애·김옥진(2018). “우울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조절효과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9(3), pp.241-273.
- 유지혜·유혜승(2018). “청소년의 우울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격성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9(1), pp.89-113.
- 이다경(201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공격성의 관계: 자아탄력성

- 과 우울의 중 다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미지(2014).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우울, 학교적응 변인들 간 관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주윤(2018).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금옥(2017). “부모의 과잉기대, 과잉간섭, 비 일관적 양육방식과 청소년 우울과의 관계 : 청소년 공격성의 매개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25(2), pp.251-274.
- 정문자·이종일(2010). “수용적 부모양육이 아동의 사회불안 및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 성별 조절효과를 통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8(9), pp.103-111.
- 정수정(2012).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만족도 조절효과 검증”, 위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은선(2008). “부모의 양육태도가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 강인성과 완벽주의의 매개역할”,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재영(201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자기개념과 또래지각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혜원(2009). “사이버비행 지속에 미치는 영향:사회유대이론, 자기통제이론, 비행기회이론을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16(4), 97-112.
- 정혜원(2010). “청소년단계에서 사이버 비행의 변화에 대한 연구:일반긴장이론, 자기통제이론, 비행기회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1(2), 263-288
- 정택용(2016).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학교생활적응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제미영(2014). “청소년 우울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전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주석진·조성심·김근아(2013). “군인가정 자녀의 우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2), pp.69-95.
- 주정호(2014).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태도가 유아의 다중지능발달에 미치는 영향”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차윤님(2018). “아동 및 청소년의 피학대 경험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 관한 종단연구 : 지역사회인식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호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영걸(2015). “초·중학생의 양육환경,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통합적 연구중심으로”,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용호(2016).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이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우울과 학교부적응의 매개효과 및 성별, 교내동아리 활동, 남녀공학의 조절효과 검증”,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진(2016). “부모양육태도 불일치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스트레스와 우울의 매개변수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재복(2015). “신체활동 참여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분석”,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미라(2012).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성희(2015). “부모양육방식 및 학교생활적응이 다문화가정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진숙(2017). “부모양육태도와 공감능력이 중학생의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혜정(2016).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우울, 학교적응의 관계 : 팬덤 활동 형태 간 다집단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희정(201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공감능력 및 공격성의 관계 : 자기조절능력의 조절효과”,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미라(2012).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대현(2013).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공격성의 관계: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진현(201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우울의 매개효과”, 서울기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 기타자료

- 교육부(2018). 2018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보도자료.
- 교육부(2014) 2014년 초, 중고, 학업중단 현황발표, 보도자료.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http://nyid.kyci.or.kr>)

2. 국외 문헌

Anderson, J.(1984).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ew York: John Wiley & Sons.

- Agnew, R.(2001). Building on the foundation of the general strain theory: Specifying the types of strain most likely to lead to crime and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38(4), pp.319-361.
- Akers, R., M. Krohn, L. Lanza-Kaduce, M. Radosevich.(1979). Social Learning and Deviant Behavior: A Specific test a General Theory, *American sociology Review*, 44, pp.298-310.
- Association between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nd learning disorder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24(2), pp.88-95.
- Arneklev, B., H. Grasmick, C. Tittle, and R. Bursik. 1993. "Self-Control Theory and Imprudent Behavior,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9, pp.225-247.
- Blackwell, B.S., and A.R. Piquero.(2005).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gender, power control, and Crim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3, pp.1-17.
- Burton, V.S. F.T. Cullen, T.D. Evans, L.F. Alarid, and R.G. Dunaway. 1998."Gender, Self-Control, and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5, pp.123-147.
- Baldwin, A. L.(1947). Changes in parent behavior during childhood, *American Psychologist*, 2, pp.425-426.
- Barber, B. K.(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 pp.3296-3319.
- Baumrind, D.(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s*, 4, pp.1-102.
- Becker, W. C.(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 W. W.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1, pp.169-208,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Bourdeau, L., & Ryan, T. J.(1978). Teacher interaction with preschool

- children: Attitudes, contacts, and their effect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10, pp.283-295.
- Chao, R. K.(1994). Beyond parental control and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Understanding Chinese parenting through the cultural notion of training, *Child Development*, 65, pp.1111 - 1119.
- Chua, A.(2011). *Battle Hymn of the Tiger Mother*, New York: Penguin Press.
- Conger, R., Conger, K., Elder, G., Lorenz, F., Simons, R. L., & Whitbeck, L. B.(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olescent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pp.526-541.
- Feshbach, S.(1964). The function of aggression and the regulation of aggressive drive, *Psychological Review*, 71, pp.257-272.
- Frodi, A. Macaulay, J., & Thome, P. R.(1977). Are women always less aggressive than men? A review of the experimental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84, pp.634-660.
- Goldsmith, H. H., & Alansky, J.(1987). Maternal and infant temperamental predictors of attachment: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linical and Consulting Psychology*, 55, pp.805-816.
- Greenberger, E., & Chen, C.(1996). Perceived family relationships and depressed mood in early and late adolescence: A comparison of European and Asian Americans, *Developmental Psychology*, 32, pp.707-716.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pp.1103-1118.
- Lamborn, S., Mounts, N., Steinberg, L., & Dornbusch, S.(1991). Patterns of

- competence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2, pp.1049-1065.
- Langlois, J. H., Ritter, J. M., Casey, R. J., & Sawin, D. B.(1995). Infant attractiveness predicts maternal behaviors and attitudes, *Developmental Psychology*, 31, pp.464-472.
- Maccoby, E. E., & Martin, J. A.(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P. H.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pp.1-101). New York: Wiley.
- Miller, C., McLaughlin, J., Haddon, J., & Chansky, N.(1968). Socio-economic class and teacher bias, *Psychological Reports*, 23, 806.
- Mussen, D., Conger, J., & Kagan, J.(1979). *Child development & personality*, New York: Morrow.
- Pratt, M. W., Kerig, P., Cowan, P. A., & Cowan, C. P.(1988). Mothers and fathers teaching 3-year-olds: Authoritative parenting and adult scaffolding of young children's learn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4, pp.832-839.
- Sameroff, A. J.(1975). Transactional models in early social relations, *Human Development*, 18, pp.65 - 79.
- Schaefer, E. S.(1965). A configurational analysis of children's reports of parent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 pp.552-557.
- Symonds, P. M.(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 Steinberg, L., Lamborn, S., Darling, N., Mounts, N., & Dornbusch, S.(1994). Over-time changes in adjustment and competence amount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5, pp.754-770.

Thompson, A., Hollis, C., & Richards, D.(2003). Authoritarian parenting attitudes as a risk for conduct problems: Results from a British national cohort study, *Europea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12, pp.84-91.